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박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핍박받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1월 28일 (토) 제 1907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Opensoors, 2023 기독교 박해지수 발표... 북한, 다시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선정

지난해 5,6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2,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공격받거나 폐쇄되었다. 기독교인 124,000명 이상이 신앙을 이유로 강제로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했고, 15,000여 명이 난민이 됐다. 이슬람 극단주의가 나이지리아를 훨씬 넘어 확산되면서 세계 기독교의 진원지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폭력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픈도어(Open Doors)의 연간 보고서 2023년 월드워치 목록(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가장 위험하고 기독교인이 되기 어려운 상위 50개국 중 북한이 다시 1위에 올랐다(The 50 Countries Where It's Hardest to Follow Jesus in 2023: Latest report on Christian persecution finds Nigeria and Sub-Saharan Africa the epicenter of jihadist violence, while China leads effort to redefine religious rights).



전쟁 한복판에서도, 난민 위한 교회 자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라는 개척 교회: 즈미시에(ZMICIER)/안나(ANNA)

로잔 운동 스태프인 안나(Anna)와 남편 즈미시에(Zmicier)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폴란드에서 난민을 위한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2021년 12월 어느 이른 아침, 즈미시에와 안나 초비다룩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에 잠에서 깬다. 벨라루스 경찰이 들이닥친 것이다. “무장한 사람들이 방패와 총을 들고 ‘바닥에 엎드려!’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즈미시에가 말했다. 경찰은 즈미시에를 구타하고 그들의 소지품을 뒤져 귀중품을 빼앗은 뒤 그를 차로 데려갔다. 차 안에서 그들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경찰이 그에게 예의를 갖추었다는 영상을 녹화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15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안나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즈미시에를 데려간 지 한 시간 후, 안나는 자신이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전쟁이 발발한 최악의 상황에서 이 부부가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로, 그리고 마침내 폴란드로 가는 고통스러운 몇 달간의 여정의 시작이었다(A Seedling Church Plant Grows from the Ukraine War: ZMICIER AND ANNA'S STORY).

피의 목사(The Bloody Pastor)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이 체포되거나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다. 안나는 “벨라루스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거나 말을 하면 체포될 수도 있다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6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푸른초장 조은철 목사 4면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 이윤진 16면
--	--	---

순교와 교회 공격이 우려되는 수치만 살펴보면 사실상 지난해 보고서보다 낮다. 그러나 오픈 도어는 이는 “절대적인 최소 수치”라고 강조하며, 데이터 상의 감소가 종교 자유의 실질적인 개선을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나타난 수치 감소는 중국 관리들이 지난 2년 동안 약 7,000개의 교회를 폐쇄했기 때문에 데이터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지난해 1위에서 올해 9위로 떨어진 데는 탈레반 장악 이후 대부분의 아프간 기독교인들이 “깊이 숨었거나 해외로 도망쳤다”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해와 마찬가지로 박해나 차별이 심한 국가에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거주하고 있다. 아프리카 신자 5명 중 1명, 아시아 5명 중 2명, 중남미 15명 중 1명 등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꼴인 셈이다.

그리고 30년간의 조사 중 세 번째로, 50개국 모두가 오픈도어의 84개 설문지에 “매우 높은” 박해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순위 바로 밖으로 떨어진 5개국도 마찬가지였다.

오픈도어가 곧 나이지리아 대륙 전역에 “거대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는 계속해서 가장 많은 박해(31개국)가 일어나고 있다. 연구자들은 또한 중국이 어떻게 디지털 제한과 감시를

늘리고 “보편적인 기준과 종교적 자유에서 벗어나 인권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주목했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가 기독교인을 반대의 목소리로 보는 시각이 높아지면서 과거 명단에 올랐다.

올해 박해 보고서 중 특이점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지하디스트 운동 확산에

따른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증가와 중국의 디지털 박해와 중국의 기독교 억압 모델의 확산, 중동에서의 지속된 압박과 중동교회 축소 현상이다: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6개국에서는 폭력 총점이 8% 증가했다.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Sharing Bread for Soul (SBS)
월드쉐어USA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본부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www.rptseast.org

2023년 봄학기 개강부흥회·강의
개강부흥회: 너를 부르신다 (마태복음 4:19-20)
2023년 1월31일(화)-2월2일(목) 오후8:00

Th.M 설교학 강의: **현대 내러티브 설교의 철학과 기법**
2023년 1월 31일(화)-2월3일(금) 오전 9:00-오후4:00

 권호 목사 한국 합신대 교수,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공동대표 M.Div.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Ph.D.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임도균 목사 한국 침신대 교수,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공동대표 M.Div.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h.M.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D.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	--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 (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대학부	신학사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		3년	세례교인
신학교 부설 평신도 여학원, 신학원			
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석사(M.R.E)	2년	M.Div학위 학력자
	선교학석사(M.Miss)	2년	
	신학석사(Th.M)(설교학)	2년	

2023학년도 봄학기 입학안내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3년 1월27일(금) 오후6시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학시험: 2023년 1월2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2시
개강부흥회: 2023년 1월31일(화) - 2월2일(목) 오후 8시
문의처: 학감 정기태 목사: 917-733-7387
행정실장 김신경 전도사: 646-708-1101
사무실: 718-463-7163
주소: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rptseast.org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②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③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④ 신앙고백서 1부
⑤ 명함판 사진 2매
⑥ 입학 전형료 (\$3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발행인 칼럼

킬리만자로의 표범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표범을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굽어서 얼어서 죽는다/ 낮은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물지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물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디리----’ 아프리카에 있는 산 킬리만자로에 대한 관심은 지리 선생님보다 조용필씨가 부른 노래 때문에 더 크게 갖게 되었다. 드디어 지도에서 보고 노래로 듣던 킬리만자로를 직접 보게 되었다. 며칠 전 장로님들과 함께 케냐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지가 그 산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지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킬리만자로는 많은 시간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일행이 그곳에 머물러 있던 이틀 동안 선명히 그 산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망원경으로 둘러보았지만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도 볼 수 없었고, 산 정상에서 고독하게 얼어 죽어가는 표범도 찾을 수 없었다.

죽고자 하는 표범은 못 만났지만 죽고 싶어 했던 사람은 직접 만나 보았다. 그 분은 킬리만자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직장암 말기의 진단을 받았다. 4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통보도 받았다. 대장을 이미 많이 잘라내어 소장을 몸 밖으로 꺼내 놓고 살고 있었다. 한국에 아무 연구도 없고 60세가 되도록 총각으로 외롭게 살던 그 사람, 기왕 죽을 몸인데 모든 장기를 기증하겠노라며 사인을 했다. 한 번에 몸 전체를 기증하겠다고 사인한 것이 아니라 파츠별로 기증하겠다고 여러 분야의 의사들을 만나 각각 사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 너무 안 죽는 것이었다. 의사들은 자꾸 병실을 들락날락 하지 빨리 죽지는 않지. 의사와 자기의 장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서 죽어야 했다.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전하자면 ‘죽지 않아 너무 미안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은 ‘빨리 죽여주세요’ 이었다. 놀랍게도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남은 대장을 살살 있고 이었고 꺼낸 소장을 다시 집어넣었다. 그의 장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이 있었으리라.

몸이 회복된 그에게 어느 여인이 프로포즈를 했다. 그 여인에게는 결혼한 딸이 있었다. 60세의 총각과 결혼한 딸을 둔 여인과의 결혼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그는 다시 살아난 삶을 선교에 드리기로 했고 지금은 두 부부가 나이로비에서 사역하고 있다. 아내의 딸이 아이를 낳는 바람에 60세에 총각 결혼한 그 분은 62세에 할아버지가 되었다. 60세에 총각 결혼하고, 62세에 손주 본 선교사님은 원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외롭게 죽으려 했었다. 누구에게도 살아야 할 이유를 대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가 원했던 죽음이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 뒤야지/ 한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내가 이 땅에 산 흔적은 무엇이 될까? 케냐를 떠나오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물음이다.

“모방을 통한 형성” 제자훈련의 핵심!

TGC, 엘리엇 클라크 목사가 전해주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장하는 제자훈련의 의미 소개

제자도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누군가에게는 커피를 마시며 하는 성경 공부, 또 거기에 기도와 서로 섬기고 돌봄까지 포함한 모임이 떠오를 수도 있다. 또 누군가에게는 사역 과정에서 수행하는 책임일 수도 있다.

엘리엇 클라크(Elliott Clark, 현재 Training Leaders International에서 해외 교회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목사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 후보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제자훈련이 바로 교육과 경험만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의 모범을 통해 천천히 제자로 만들어졌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그는 신학교 생활은 수업과 관계없이 특히 나를 성장으로 이끈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교인 가정을 다니면서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은 진정한 겸손과 인내, 봉사와 친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더 나은 배우자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고백한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는 그동안 교육과 경험만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의 모범을 통해 천천히 제자로 만들어졌음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제자 삼는 모든 사역에 관한 성경적 패턴에는 본받을 만한 이런 식의 성장(formation)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권고한다(Is Your Discipleship Model Missing Some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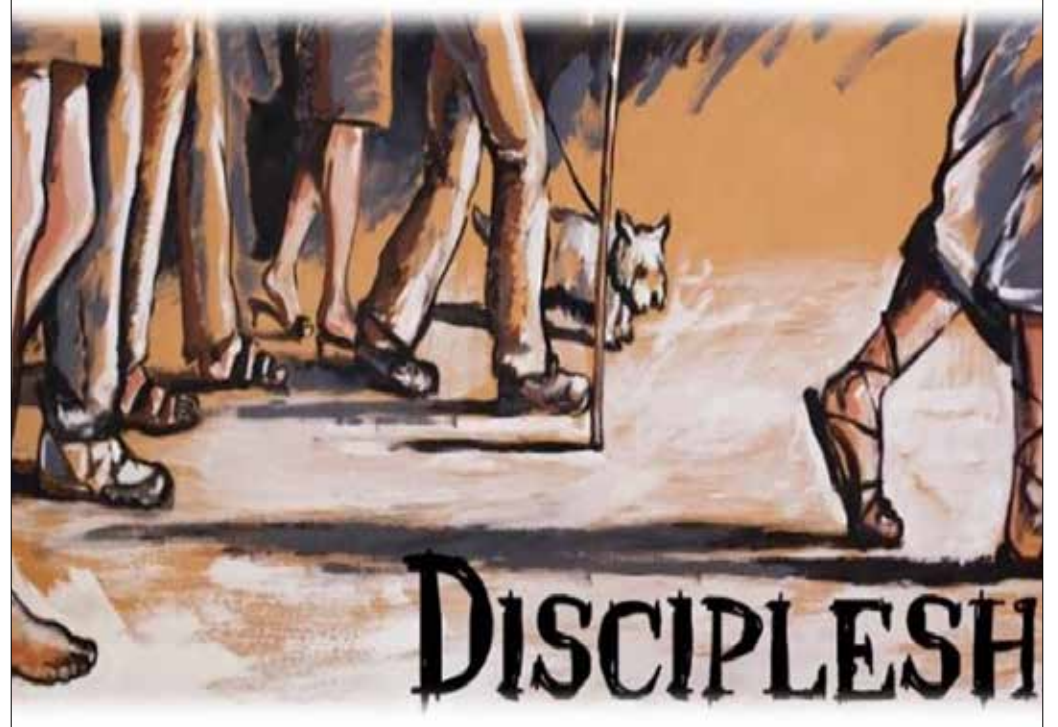
제자도에 관한 인식은 종종 서방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제자 삼는 방법은 크게 다음 두 가지 기본 범주에 포함된다.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위임을 통한 제자 삼기이다.

교육적 모델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소수의 교사를 통해 제자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회 출신이다. 이런 제자훈련은 주로 주일 아침 수업, 비공식 성경 공부, 강해 설교,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 학교나 신학교에서 일어난다.

누구나 자신이 훈련받은 방식으로 제자 삼는 경향이 있기에, 교육적 모델의 배경을 가진 서양 선교사는 종종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제자를 만들기 원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존의 인지적인 접근 방식에 대응하여 또 다른 제자훈련 방법이 등장했다.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많은 선교사가 위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새로운 신자를 즉각적으로 전도와 교회 개척 사역에 투입함으로써 그들의 제자됨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식민주의(colonialism)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동력을 얻었다. 서양 선교사가 도착 신자에게 가할 수 있는 외부 사상의 강요나 필요 이상의 영향력 주입을 피하도록 하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순수한



교육 모델, 특히 신학교 훈련으로 끝나는 모델은 개발도상국에서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것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교육 모델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는 선교사는 그것을 넘어선 방법을 채택할 뿐 아니라 심지어 비판하기까지 한다. 멀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섬기는 능력을 지닌 새로운 신자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는 제자를 삼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다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도는 교육과 위임이 다 필요하다. 그러나 온전한 제자 삼는 성경적 패러다임은 본받을 만한 함의에 단지 이 두 가지 접근 방식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더 나아가 더 넓은 제자 공동체를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사도들에게 책임을 맡기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까지 주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요소는 “그와 함께 있는 것”(막 3:14)이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 하나님 나라 선포이든, 귀신 축출이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임으로 알려주셨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에게 꼭 필요한 섬김과 고난을 본보기로 제시하셨다(막 8:34; 10:45). 교육받지 못한 갈릴리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행 4:13)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가 처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의 제자임을 세상에 입증할 것이라고(요 13:34-35).

강조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자 삼기에 대한 바울의 접근 방식은 예수님이 보여 주신 생생한 모범에 크게 의존했다(고전 4:17; 빌 3:17). 그는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르쳤다(교육). 동료와 지역 주민이 자신이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다(투자).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모아 시간을 함께 보냈고,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했다(행 20:4). 바울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이 그를 본받아야(고전 11:1; 살전 1:6; 딤후 3:10),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살전 1:7; 딤후 4:12; 딤후 2:7).

바울의 제자도 여정을 관찰한 사람이라면, 제자도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바울은 새로운 신자를 향한 권위 있는 가르침이든, 궁극적인 사역의 위임이든, 계속해서 멘토링 모델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의 제자 삼는 모든 과정에는 모방이 스며들어 있다.

공유 경험과 본받음에 대한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323) 737-7699
인터넷 쇼핑: www.lachristianbookcenter.com

담임목사 청빙공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님께서 65세에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파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 조건: 1.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 후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 목사 및 부목사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2.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분
3. 만 55세 이전의 나이로 다음 세대와 이민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으신 분
4.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고 미국 내 체류 및 목회 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신앙 고백 및 자신의 비전에 영향을 끼친 책이나 신학자, 목회자 인용)
3. 학력 증명서
4. 속해있는 교단의 노회에서 발행한 안수 증명서
5. 신학교 교수 및 명망 있는 목회자의 추천서(추천자의 연락처 포함)
6. 최근 설교 영상 2편(온라인 링크) * 설교 원고 포함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후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 마감일: 2023년 3월 15일
3. yspastor2023@gmail.com으로 보내시고 첨부파일은 PDF file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장로교회
Yuong Sang Presbyterian Church
706 Witmer Road, Horsham, PA 19044
http://www.yspc.org | 215-542-0288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청빙
MA주 FEEDING HILLS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회(AG)소속 갈보리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현 목사님을 이어 후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나이: 40세 부터 50세 까지
경력: 이민목회 3년이상(부목사 경력 포함)
교단: 본 교단 목사 및 타 교단 목사는 하나님의 성회(AG)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언어: 2중 언어(한국어와 영어)소통이 가능한 분
신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항이 없는 분으로 영주권 후원도 가능
학력: M.Div.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이력서(본인및 가족 사진 첨부)1부
본인및 사모의 자기 소개서 각 1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1부
추천서 2부(응시자가 담임 목사일 경우 교단및 지방회, 부목사일 경우 담임 목사와 그외 1인)추천인이 연락처 기재하고 직접 제출
주보 2회분(현 시무 교회 최근 3개월 이내)
개인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1부
제출 마감일: 2023년 2월 28일
제출및 문의: 제출및 문의: E-MAIL(cavaryassembly2023@gmail.com)로 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담임목사 청빙용으로만 사용하며 청빙 완료후 폐기됩니다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교회 (Calvary Assembly of God)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1면에서 계속)

난민이 된 기독교인들도 쉽게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또 보코하람, ISWAP, 풀라니 등 무장 세력이 기독교 공동체를 급습하는 일이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나이지리아 주변국도 역시 지하디스트가 확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르키나파소(23위)는 지하디스트 활동의 확대를 많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강제 폐쇄됐으며, 말리(17위)는 쿠데타가 반복되면서 지하디스트가 국가 지역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주변국이 아닌 아프리카 대륙 동남부에 위치한 모잠비크(32위)의 경우도 지하디스트의 직접적 공격을 받고 있다.

2. 중국과 권위주의 국가 모델=중국(16위)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통적 개념의 인권을 생존, 발달, 안보와 같은 더 주관적 권리로 재정의하는 국제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스리랑카(52위), 미얀마(14위), 말레이시아(43위) 등 몇몇 중앙아시아 국가와 러시아(62위), 인도(10위)도 이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집권당을 지지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독교 소수자들은 평화 방해자,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힐 수 있고, 체포, 교회 철거, 교회 등록 취소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디지털 감시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박해'

를 주목해야 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2022년 3월 교회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돼 1억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더 억압했다. 베이징은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단체에 대한 통제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더 많은 검열, 허위 정보, 지나친 감시를 시행했다.

또 코로나19에서 도입된 추적 애플리케이션과 수집된 데이터가 재사용됐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거래가 초래할 영향을 눈감아 줄 몇몇 서방 기업과 필요한 기술을 기꺼이 수출할 의지를 보였다.

3. 중동=중동에서는 지속된 압박으로 교회가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다. 시리아(12위)는 더 많은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튀니지(36위)는 독재 정치, 아랍에미리트(54위)는 모바일 장치를 통한 감시 강화, 사우디아라비아(13위)는 기독교인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며, 알제리아(19위)는 기독교인과 기독교 지도자를 모두 기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4. 라틴 아메리카에서 교회의 상황은 악화하였다. 2022년 박해순위에서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의 3개 국가가 상위 50위 안에 있었는데, 2023년 목록에는 니카라과 합류하여 4개 국가가 되었다.

쿠바는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고,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정부의 부패와 폭력조직 등으로 기독교인이 박해

에 직면하고 있다. 니카라과, 쿠바, 베네수엘라에서는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다. 특히 니카라과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탄압이 한 해 동안 점점 가시화되었다.

한편 북한에서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월드와치리스크스(WWL) 목록에서 상위에 기록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박해받는 신자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더 효과적으로 분노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격려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023년 보고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60여 개국에서 일하는 4,000명이 넘는 오픈도어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근간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철의 장막이 무너진 후 1993년에 처음으로 목록을 만든 이후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오픈도어는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박해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WWL에서 조사해야 할 국가는 1993년 40개에서 오늘날 76개로 증가했으며 평균 국가 점수는 25% 증가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라고 오픈도어 연구 이사인 프란스 비어만은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어떤 신자도 혼자서 고통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는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은 박해가 고통을 가져

오고,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면 희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외부적인 폭력과 압박은 신자들에게 상당한 손실과 트라우마를 가져다주지만, 비어만은 "설문지에 응답한 많은 응답자들이 놀랍게도 가장 큰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박해에 대비할 것인가, '그들은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가?'에 주목했다.

그는 "이는 교회의 회복력 수준이 박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 교회의 미래를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래서 박해가 있는 나라에서 교회에 주는 가장 큰 위협은 끊임없는 박해로 인한 회복력 저하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버림받는 느낌이다."

비어만은 "오픈도어는 30년간의 연구 끝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앵커'됨으로써 이렇게 필요한 회복력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해받는 교회가 '복음 전파에 적극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역경에 맞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박해받는 교회를 통해 오픈도어는 고린도 후서 12장 26절의 진리를 깨달았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찾아야 한다(본바음). 당당하게 나의 삶을 닦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입증된 성품을 갖춘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

성경 공부와 개인적인 관찰을 통해 나는 주님이 주신 지성명령이 단지 교육이나 위임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한다. 눈에 띄는 행실, 모범적인 봉사,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때 진정한 제자도는 실현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

더 잘 알아야 한다(히 13:7). 서구식 선교 방법은 사역을 주로 정보와 거래 중심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르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고, 또 무엇보다 서로 함께해야 한다. 이런 풍토는 신자들이 서로를 환대하고 책임을 다하는 지역 교회의 상황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교회 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모범의 가치는 단지 중재된 존재 또는 가상 모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충실한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가정을 약화시킨다. 본바

음이 성숙의 중심이라면, 교회가 의미 있는 관계를 제공하는 물리적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제자훈련이라는 중심 과제에서 교회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선교를 예로 들자면, 단기 선교, 가상 훈련, 또는 부업 차원에서 촉매제 및 컨설턴트로 봉사하는 선교사와 함께해서는 결코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실은 지역 교회가 사역자나 선교사를 찾을 때 단순히 학력(교육)이나 경험(위임)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거기에 더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



시론

2023년 내 삶의 주어는?



은하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아침에 잠에서 깨면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 사람들중 누가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낙담해 있으면 부족의 치료사가 찾아가 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1.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 것이 언제인가?, 2. 마지막으로 춤을 춘 것이 언제인가?, 3.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인가?, 4.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질문 후에 처방은 '그 네가지를 하루빨리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호주의 젊은 작가 에린 헨슨은 <아닌 것>이라는 작품에서 내가 아닌 것을 말하며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은 옷의 크기도 당신이 아니다.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목격했 부르는 노래가 당신이고, 당신이 믿는 것들이 당신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다. 바로 '나다.'』 (인터넷 퍼온 글) 2021년은 '신축년 하얀 소'의 해, 작년 2022년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 올해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하얀 소에, 검은 호랑이에, 검은 토끼에 우리들의 삶을 맡기고 빌고 삼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하얀 소를, 검은 호랑이를, 검은 토끼를 창조하시고 부리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입니다. 주인을 알면 끝나는 것이지 주인이 만든 것들에게 왜 의지를 합니까? 우리의 주인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나의 심자가와 부활에 함께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세상 살날까지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서 힘과 능력과 격려와 인도자 되시는 '나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인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삶의 주어'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인도하셨어'가 맞습니다. '내가 이제 봉사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봉사하도록 인도하셨어'가 맞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예수 잘 믿도록 체면과 간증도 주시고 이끌어주셨어'가 맞습니다. '내가 돈 잘 벌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한 정지기가 되어야지'가 맞습니다... 등등. 우리가 우리들과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고 산다면 가장 먼저 '우리들의 주어'를 '나, 내가, 나의'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로 의식적으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들의 언어에 '나의 주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의식적인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전 의식적으로라도 '나의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의식적인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덧 우리들의 삶의 주어가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3년 계묘년이 중요하게 아니라 2023년에도 변함없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만약 2023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낙담해 있다면 위와 같이 4가지의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1. 마지막으로 찬양한 것이 언제인가?, 2. 마지막으로 예배하며 춤 추는 것이 언제인가?, 3. 마지막으로 간증한 것이 언제인가?, 4.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한 것이 언제인가?" 그리고 질문 후에 처방은 그 네가지를 '하루빨리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2023년은 검은 토끼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성령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검은 토끼가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에린헨슨처럼 '진정한 나'는 '내가 부르는 노래! 내가 믿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2023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은 가는 것이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보내고 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더욱더 내 혀와 몸이 자유로울 때 삶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추십시오.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앞에 엎드리십시오. 곁에 가족과 이웃과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며 더욱 따뜻하게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게 '나'니까, 그게 바로 '우리'니까. "너희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1) 2023년이라고 내 환경이 작년보다 더 나아지겠습니까? 다만 마음껏 독수리 날개짓하며 웅비하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올해의 환경과 여건을 힘차게 뚫고 나갈 때 오늘도 살아서 나와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2023년 검은 토끼, 환경,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3년 내 믿음, 내 주어'가 중요합니다. 그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pastor.eun@gmail.com

모범을 통한 형성...

(2면에서 계속)

물론 교육 모델에 전념하는 사람이라고 신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위임에서 항상 실패한 것은 아니다. 위임을 통한 사역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이 성경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제자 양육을 위한 성경적 모델이 교육과 위임과 모범을 다 포함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Christian formation)에 대해서 더욱 관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에게 관해서 좀



담임목사 청빙공고

시카고한인교회는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소속된 시카고 인근 Hoffman Estates에 위치한 교회로 창립 50주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교회"가 되고자 힘써온 교회입니다. 4대 목사님이 사임함에 따라 5대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로마서 14:23)"

1500 W. Algonquin Rd., Hoffman Estates, IL 60192 (847)359-1522 kccoffice1972@gmail.com www.kcclove.org

시카고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1. 자격 요건

-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M.Div. 학위를 가지신 분
* 목회경력(Full Time)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가 가능하신 분
* 미국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

2. 제출 서류

- * 본 교회 양식 지원서 (kcclove.org에서 download)
* 목회 계획서 (시카고한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비전과 계획)
* 목사 안수 증명서 및 M.Div. 그리고 최종 졸업(학위) 증명서
* 추천서(2명 이상)
* 자기 소개서 (신앙고백, 목회 경험, 성장 배경, 가족 소개, 소명 - letter 사이즈 2장 이내)
* 1년 이내의 한국어 설교 (2편) 및 영어 설교 (1편, optional) 동영상

3. 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 Email: kccpulpitapp23@gmail.com (PDF 파일로 보냄)
* 주소: Korean Church of Chicago 1500 W. Algonquin Rd, Hoffman Estates, IL 60192 Attn: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4. 제출 기간

- * 2023년 2월 28일까지 (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5. 기타

-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에서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익는 시카고한인교회 청빙위원회로 이메일 해 주시면 됩니다 (kccpulpitapp23@gmail.com)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복잡한 인간관계를 위한 새해의 결단은 무엇이어야 할까?

어느 학생이 학교에 늦게 가서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 그때 학생은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다음부터 늦게 일어나면 지각하지 말고 결석해야겠다." 또 다른 어느 학생이 엄마에

게 잘못된 행동으로 야단을 맞았다. 그리고 엄마는 앞으로 이렇게 야단을 맞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가 방에 들어가 기도하였다. 엄마는 기특하여 무슨 기도를 드렸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말하기를 "앞으로 자기가 잘못하면 엄마가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위의 이야기를 보면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단지 어려운 경우

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어른들로 우스움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도 보면 가끔 그런 어린아이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인가의 계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계엄을 없애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일이 그르쳤거나 상대방으로 화를 내게 하였다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는 버릇을 고쳐 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또한 자기의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지적받았다면 지적한 사람을 섭섭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행동을 고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그리고 섭섭한 가운데 상대방

이 변할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모든 일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중심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데 적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면 스스로 풀 길을 찾아야 한다. 자신이 묶은 것은 자신이 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목회자로서 인간관계를 위한 다음과 같

은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다. 1.절대로 누군가를 쓸데없이 공격하지 않는다. 2.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받았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3.부당하게 행동한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 4.다음에 만났을 때는 없었던 일로 생각하며 대한다. 5.상대방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행동은 무조건 피하도록 한다. 6.모든 것에 현명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가 있을 것을 믿는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심계명을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1-4)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라(5-10)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또 명령하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두라는 것입니다. 부모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일하거나 쉬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7-40)

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있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는 일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사모하게 됩니다.

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말씀이 귀찮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듣기도 싫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신앙, 내

Service라고 말합니다. Service란 말은 봉사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재물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봉사해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도, 몸도, 재간도 다 바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물질로도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치는 봉사로 즐거워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많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땅에 붙은 부귀영화, 공명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생을 마쳤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향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의 일꾼들을 돕는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2.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

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인생관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참 지혜가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 지혜에 녹이 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사람도 지나갑니다. 물질도 지나갑니다. 인간의 명예도 지나갑니다. 인간의 지위도 지나갑니다. 인간의 지식도 지나갑니다. 인간의 즐거움도 잠시 있다가 지나갑니다. 땅의 것은 다 영원한 것은 없고 구름같이 지나갑니다. 땅에 붙은 모든 것은 슬픈 결말을 고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가장 영화롭게, 가장 부를 누리며, 가장 지혜 있게, 그 인생을 누린 솔로몬이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도서 1:2)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린도전서 13:13)

우리 다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4-9)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은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당신의 전인격을 예수께 맡겨 드리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drijo@hotmail.com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4-9



1.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잠시도 떠나있기 싫어 항상 동행합니다. 예수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결을 떠날 때 큰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땅에서 사람들끼리의 사랑도 떨어지기 싫어 합니다. 땅에서 누리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42:1)
왜 하나님을 갈급히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라면 그 편지를 읽고, 읽고, 또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사모합니다. 주일 낮 예배 전에 장년 주일 공과 시간에 많이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사

생명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왜, 이 사랑이 식었는지, 떨어졌는지,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의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우리가 예수에게 보존되는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4-5).

3)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봉사하고서야 만족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봉사하게 됩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내 애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대개 두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Worship과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신, 재정봉헌의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값진 옥합을, 예수께 부었습니다. 또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봉사하고 싶으니까 방법이 생기고 열심도 생깁니다.

4)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몸을 주셨고 성령은 우리를 부르셔서 감화하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옳게 사랑합니다. 부모를 옳게 사랑합니다. 자녀를 옳게 사랑합니다. 이웃을 옳게 사랑합니다. 가정을 옳게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짧고 유한한 인생

인생을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하지만, 성경의 정의는 다르다. 성경의 비유를 보면, 살 길이 빠른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들꽃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한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100미터 단거리 전력 경주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인생의 유한함을 묵상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인생의 허무와 공허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려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말도 조금은 이해가 될 법하다. 무한의 영원함과 잇대어 있지 못한 짧고 유한한 인생의 절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가 짧고 유한한 인생의 여로지만,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그의 부탁하신 사명과 연결될 때, 인생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사명은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은 아무 미련없이 자신의 짧은 인생을, 영원하신 주의 사명 앞에 내어 드릴 수 있

삶의 설명들이다. 마땅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땅한 부흥을 맞보지 못하는 것은, 저들의 관심거리가 오직 '자기 자신과 돈'에 있고 사명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진리를 찾고 구하지 않는다. 말씀의 원리를 삶, 증인된 삶의 사명'에 대해 간절함이 없다. 고민도 없다. 그 결과 결국 교회는 새 생명의 부흥, 생명의 산실이 되지 못하고 마치 아이가 출생하지 않는 산부인과 병원의 마지막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사명앞에 내려놓음

사명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며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세 가지 종류의 신자가 있다. 교적부에 등록된 이름을 두고 칭하는 '교인'이라는 이름이다. 또한, 교회만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믿으려 애쓰는 사람들을 일컫는 '성도'가 있다. 그리고, 참된 성도, 주님이

과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지역에서, 아주 불편해 보이는 목회를 하고 계셨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를 위해, 누가 누가 더 편하게 해주는가? 로 경쟁을 하는 것 같다.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면 잘 차려진 코스요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케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교육과 상담 등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등등' 마치 유치원 광고처럼 사람들을 흡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중에 방만한 이 교회는 예배가 2시간 반을 넘긴다. 설교만 한 시간 반을 지나간다. 강해 설교 한 권을 3년이 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는 다른 어떤 큰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다. 작지만 강한 교회였다. 게다가, 장로님 한 분의 헌신으로 교회당을 매입하고, 매입액수보다 더 큰 공사비가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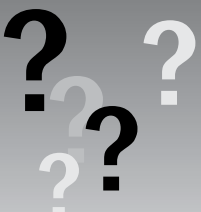
나 미국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모든 예배, 새벽예배의 의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점심 친교준비를 위해 집에서도 잘 하지 않는 밥을 하기 위해 손에 물을 적실 필요도 없다. 그래서 편안함을 찾아 미국교회를 적절한 중간 스테이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는 미국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전도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고 권면하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가진 유수의 대형 한인교회들과 미국교회내의 한인들, 또 그들과는 다르게 생활하는 집회 차 다녀온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다. 다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고, 한 하나님, 한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의 기쁨, 칭찬, 인정, 상급의 대상이 되는 교회와 성도는 어디일까? 를 생각해 본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편한 세월 지나고 누구나가 직면하는 임종의 때가 찾아올 것인데, 그때 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는 1.5세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다보니 어려움도 많고 장애물도 많으며 저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애나하임에서 KIM 목사

A: 교회를 개척하여 이끌어 나가는 것은 목회자의 상당한 리더십과 팔로워(Follower)들의 협력과 환경 이 3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개척교회는 일군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목회자는 외롭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목사님은 영적으로 Breakthrough(돌파)가 필요합니다.

영어 단어 break은 깨뜨린다는 뜻이요 / Through는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내 앞의 장애물을 깨뜨리고 뚫고 나가는 돌파를 말합니다. Breakthrough란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니 주로 3가지 의미에서 쓰입니다.

첫째는 적국의 방어선을 뚫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과학과 지식과 외교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견이나 비약적 발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의학계에서는 아직까지 당뇨병이나 암을 치료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파괴하고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Breakthrough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해가 안개를 뚫고 나올 때 Breakthrough란 단어를 씁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민생활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목회하는 목회자는 내 앞의 장애물과 불가능의 벽을 인내하며 돌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앞의 산들 영적으로 Breakthrough 정복'

폴 스톨즈란 사람은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 Quitter- 포기하는 사람, 힘든 산과 장애물을 만날때 포기하고 도망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2) Camper- 그만 덜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3) Climber- 산을 기어 올라 정복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돌파입니다. 믿음은 태산과 장애물과 문제 앞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돌파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폴 리 앤드류스가 주연한 영화 "사운드오브뮤직(The Sound of Music)"을 과거에 감독 가운데 본 이후 목사가 된 후에도 10번은 더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는 내게 목회에 많은 영감을 준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수녀가 되려는 견습생인 마리아가 퇴역 군인인 폰트랩 대령의 집에 잠시 가정교사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일곱이나 되는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도 마리아를 좋아하고 잘 따릅니다. 폰트랩 대령은 현재 부인이 죽은 홀아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집에 가정교사로 일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으로 폰트랩 대령을 연모하게 됩니다. 더이상 사랑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는 도망치다시피 해서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을 갈등을 수녀원 원장에게 찾아 가서 고백합니다. 그때 수녀원 원장은 마리아에게 오페라식으로 "climb every mountain"을 노래하며 충고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수녀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신앙의 길은 아니다. 네가 사랑을 취하려면 너는 높고 낮은 모든 산에 올라가야 한다. 높은 길도 올라가고 너의 꿈을 찾을 때까지 시내도 건너야 한다. 이 장면은 여주인공에게 큰 동기를 부여하는 클라이막스와 같은 장면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여기서 큰 용기를 얻고 다시 폰트랩 대령의 집으로 돌아가 결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폰트랩 대령과의 사랑에 성공하고 그와 결혼해 부인이 되고 일곱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그녀는 장애물을 포기하지 않고 내 앞의 산들을 Breakthrough 정복한 것입니다.

"Climb every mountain" 이란 노래는 오늘날 영적인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미국을 살아가는 이민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사업가들, 목회하는 목회자 역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내 앞의 장애물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산을 정복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에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고생, 수고, 눈물을 당연히 여기는 증인된 사명자의 삶이었다.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감동을 전달하던 자가 아니게 할 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신자들이 아니요,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현장 속에서도 저들은 오직 사명 앞에서 멈춤이 없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논리와 방법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모든 시대의 논리와 합리성을 떠나, 하나님앞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짧은 인생, 사명, 참 교회

-편리함, 임종, 상급-

었던 것이다. 더불어 주님과 함께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달려갔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큰 환란과 핍박이 연속되었던 삶이었지만, 그는 지치지 아니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피니쉬 라인을 전력으로 통과하는 100m 선수처럼 그렇게 의미있고 멋진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다.

이처럼 멋진 인생,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분명한 사명을 목표로 전심전력하는 경주임이 분명하다. 결코 한가로울 수 없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중무장하고서 끝까지 통과할 때까지 열심히 전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며, 유한한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전도와 교회부흥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면, 복음전도와 교회부흥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하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보고서를 취합해보면, 교회마다 전도가 많이 정체되고, 성장하는 교회로 평가되는 교회들도 수평이동 교인들의 증가 정도에 그친다는 의견이 대세적이다. 전도와 부흥이 그렇게 정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대의 타락과 더불어 먼저 믿은 주의 권속들이 사명의 말씀 앞에서 그 원리를 떠났기 때문이며, 성경이 말하는 종말 시대의 현상들 앞에 무참하게 무릎꿇는 존재가 되어 버린 탓이라 여겨진다.

성경은 종말현상을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한다. 사명과 상관없는

세우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를 말할 수 있다. 제자는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삶에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로 제자이다.

모든 신자는 교인, 성도의 단계를 거쳐 제자가 된다. 주님의 꿈,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제자로 사는 것이다.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도가 되고, 나아가 반드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됨을 통해서만이 참된 사명자, 복음전도와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제자 됨은 주님앞에서 결단과 순종, 강제 포기와 같은 내려놓음의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제자가 되기 원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 무관심의 불감증, 만사를 귀찮게 여기는 것이다. 편리함에 모든 강조점을 두고 사는 것이다.

무관심 불감증, 귀차니즘(?)

미국에서 꽤 잘 산다는 동네에 위치해 있는 교회에 신년 집회를 위해 다녀왔다. 삶의 여유로움이 있고, 대형교회들이 시스템을 잘 세운 뒤 지역에서 꽤 특별한 목회를 하시는 교회였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는 교회였다. 학교 미술 선생님 하시던 분이,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 모든 것이 꼼꼼하고 철저해서, 별명이 '디테일'이라고 하셨다. 그러다 보니, 예배와 교회 전체의 움직임들도 느슨해 보이는 것이 없다. 한마디로 삶의 여유로움

고 한다. 그러는 중에, 잘못된 업자를 만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보통 교회 같으면 난리가 나고, 교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액수였지만, 어느 누구도 담임목사님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보면 드러나는 훈련된 은혜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은혜를 전하러 집회 차 방문한 본인이 오히려 옛적 일을 기억하며 많이 배우고 돌아왔다. 한마디로 명품 목사님과 명품 성도들이 세워 가는 교회였다.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좋은 지역에서, 삶의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대형교회를 두고 왜 이 고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마디로 본질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기에 그 영혼들이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편리함, 회개와 후회

우리 지역에도 가급적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있다. 미국교회이다. 미국교회에 한인이 가게 되면, 언어의 문제만 있을 뿐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교회 나아오는 복장도 자유롭기 그지없다. 목회자부터 신교 강단을 뛰어다니는 데, 성도들은 얼마나 편리할까? 헌금의 부담도 없다. 본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은 반드시 기명으로 예물을 드려 성도의 모범이 되라고 한다. 새벽기도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아니어도 교회와 사역자와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마땅한 모습임을 강조한다. 그러

찌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편한 교회를 찾고 찾아서 신앙생활하고 나타난 성도와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의 편의를 봐주었던 목사님이 주님 앞에서 딱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를 생각해 본 것이다. 서로 후회스럽고 서로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며 헌신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그저 편리함에 물들도록 교회를 경영(?)했다면, 주님 앞에서 책망 받을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대형교회여도 최선을 다해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을 꾸준히 무리가 아닌 제자 됨의 자리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모범이 된 교회도 있다고 생각된다. 본인이 알고 있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러나 한편, 코로나 이후의 목회 현실은 점차 편리함이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격화될 것 같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찾아온다. 이를 회복할 길은 무엇인가?

꽃피 인생, 불꽃처럼

짧고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를 회복할 길은 사명의 재무장밖에 없다. 삶에 지루함이 있거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할 때 권하는 비법이 있다. 생짜배기 비 그리스도인에게 찾아가서 열심히 임으로 복음을 증거 해 보라는 것이다. 가장 먼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열매인가를 확인할 것이며, 다음으로 그렇게 무미건조해 보이는 우리의 입술이 증인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은 편리

davidnjon@yahoo.com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절대적인 진리, 변화하는 선교

선교는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이고 교회 안에서도 선교위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비전, 같은 방향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만나도 힘이나고 대화해도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같을지라도 선교의 방식이 바뀌고 접근에서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진행하던 선교적 방식과 젊은이들의 선교적 개념은 너무 간격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접근 방식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하고 의아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미주 이

민교회가 가진 특성은 변화를 적절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보다는 거부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은 우리를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저 멀리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는 옛날 방식과 그동안 해오던 전략만 고집하고 있고 그것을 선교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면 너무나 아쉬운 것입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세계가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선교는 전혀 멈추지 않았습다. 로잔 북음화 운동본부에서 2022년 말에 발표한 로잔 리포트를 보면 지난 3년간 세계 선교의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모임은 25,150명이 239번에 걸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략을 논의하고 미래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세계 전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관심 분야와 진행되는 일들을 비다면 모임을 가

진 것입니다. 신학교, 교회 개척, 듣기 성경, 성경 번역, 지도 자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나누고 도전받고 힘을 합친 것입니다. 만일 대면으로 모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을 온라인으로 세계 전역에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온라인과 동영상의 북음 콘텐츠를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팬데믹 3년은 결코 뒤로 후퇴한 때가 아니요, 오히려 더 미래를 계획하고 변화할 수 없는 북음을 변화하는 세상에 접근성을 가지도록 재정비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활력있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상의 변화는 우리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IT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젊

은이들은 이미 세계 선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전략을 자연스럽게 접목하기를 원하면서 위기의식이 발동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선교의 중요성입니다.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선교 못지않게 사이버 공간에서 북음을 듣게 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는 전략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시급한 북음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관심을 끌려면 첫 30초에 마음을 잡지 못하면 청중이나 관객을 놓치고 맙니다. 어른들이 만든 콘텐츠가 결코 북음의 대상자인 10/20대에 어필되지 않고 더군다나 고리타분한 내용이라면 그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교회나 선교 단체가 옛날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새로운 온라인이라는 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도전이 앞으로 더 많은 북음 전파

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인식을 잘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겠다고 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거나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는 사회가 가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북음 전하는 것이 선교냐?'라는 질문보다 더 본질적인 교회의 미래 사역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질의 회복이란 단지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본래 세워지고 쓰임 받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교회로서 영혼을 살리는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때 젊은이들도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LA 총기난사범' 2차 범행 노렸다

시민이 제지해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소도시 몬터레이 파크에서 총기난사를 벌인 용의자가 옆 동네에서 또 다른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의 2차 범행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 2명에게 총기를 빼앗기며 제지됐다.

미국 뉴스채널 CNN은 22일(현지시간) 총기난사범 후 칸 트랜(Huu Can Tran·72)가 전날 오후 10시20분쯤 1차 범행을 저지르고 약 20분 뒤 인근 앨렘브라의 댄스 홀 '라이라이(來來) 볼룸·스튜디오'에서 2차 범행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트랜의 추가 범행은 현장에 있던 지역 주민 2명에게 총기를 빼앗기며 미수에 그쳤다.

LA 카운티 보안관(세리프) 로버트 루나는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해당 시민을 지목한 뒤 "나는 이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랜이 2차 범행에 쓰러지자 쫓아온 좋은 대응량 탄창이 달린 반자동 공격용 권총"이라면서 "(트랜의 총기를 빼앗은 시민들이) 생명을 구했다. 이들이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트랜은 2차 범행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흰색 밴을 몰고 도주했다. 이후 약 35km 떨어진 토런스의 한 쇼핑몰 인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트랜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앞서 트랜은 1차 범행 장소인 몬터레이 파크의 댄스 교습소 '스타 댄스 스튜디오'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당시 이곳에서는 음력설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이 총격으로 남성 5명과 여성 5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7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에는 중태인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몬터레이 파크는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에서 온 이민자 집단이 정착해 미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아시아계가 과반을 차지한 도시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현지 언론을 통해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증언했다. '그레이스'라는 영문 이름만 공개한 한 50대 중국계 여성은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당시 토요일 저녁을 맞아 100여명의 회원들과 댄스 교습에 참가했다가 갑작스러운 총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레이스는 "처음에는 폭죽이 터지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입구 쪽을 돌아보니 한 남성이 장총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교습소 사장 등 3명이 쓰러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는 너무 놀라 달아날 생각조차 못하고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고, 다른 교습소 회원들 역시 미처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엎드려 숨어야 했다고 했다. 희생자 대다수는 중국계로 추정된다. 한국 외교부와 LA 한인회는 현재까지 한인들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란 화매 가지 사상 최저치 폭락

유럽연합(EU)의 대이란 추가 제재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란의 통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이란 리알화 시장 환율 고시 사이트 '본바스트'에 따르면 이날 리알화 매매 환율은 미국 달러당 45만 리알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달 28일 종전 최고 환율(44만 리알)을 경신한 수치다.리알-달러 환율은 지난해 9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뒤 꾸준히 상승했다. 시위 이전 환율은 31만~32만리알 수준이었다.

최근 EU의 추가 제재 발표를 앞두고는 폭등하고 있다. 이란은 작년 9월 하잡을 쓰지 않

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대생의 의문사로 촉발한 반정부 시위를 탄압했다. 이에 EU는 이란 정부와 군·경찰의 고위 관계자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제재 명단에 오른 인사는 EU 역내 자산이 동결되고 방문도 금지된다.

페루 정부, 마추픽추 폐쇄 결정...관광객 수백명 발 묶여

반정부 시위가 격화함에 따라 잉카 유적지인 마추픽추를 폐쇄한다고 페루 문화부가 21일(현지시간) 밝혔다. AFP에 따르면 페루 문화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회적 상황과 방문객 안전을 위해 잉카 트레일과 마추픽추 폐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반란 및 음모 혐의로 구금되자, 지지자들은 그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격렬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반정부 시위대가 마추픽추의 관문인 쿠스코 공항을 습격해 인근에 있던 시민 1명이 사망하고 공항 내부에 있던 시민 50여명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페루 정부의 마추픽추 폐쇄 결정으로 유적 인근에 관광객 수백 명의 발이 묶이게 됐다고 AFP는 전했다.

지난달부터 마추픽추의 관문인 쿠스코 공항이 여러 차례 일시 폐쇄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마추픽추는 15세기 잉카 제국에서 해발 2천430m의 험준한 고산 지대에 건설한 도시 유적지로, 마추픽추는 매년 1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명소다.

차이잉원 총통 설날 담화... '대민의 주권과 평화 수호할 것'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춘제를 앞두고 대만의 주권과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자유시보와 중국 시보 등 대만 언론의 보

도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열흘 간의 춘제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20일 '음력 설'(Lunar New Year)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이 총통은 "모든 대만 국민과 전 세계 음력 설을 보내는 분들께 조금씩 새해 인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중국의 군함과 공용기의 빈번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과 대만해협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진행에 맞서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은 도전으로 가득한 한 해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시련에 대응하고 국제·지역 정세에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여전히 도전이 가득한 한해일 것"이라면서 "정부는 코로나19,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재구축 등에 전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이어 日·네덜란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우리가 거기(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 조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상당히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뤼터 총리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큰 발표 없이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 문제는 관련국간 대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미타 고지 주미일본대사는 지난 17일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에서 "산업계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기술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며, 향후 몇 주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네덜란드와 일본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가 이달 말쯤 최종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쟁 한반도에서도...

(1면에서 계속)

츠비다룩 부부가 표적이 된 이유는 2020년 이전에 즈미시에게 두 차례 구금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투표소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구금되었고, 다음엔 벨라루스에서 발생한 폭력에 반대하는 다른 기독교인과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과거 야당 운동에 가담했었기 때문에 범죄혐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체포 후 15일 동안 즈미시에는 4인용의 작은 감방에서 20명의 다른 남자와 함께 갇혀 지냈다. "경찰 구치소의 상황은 끔찍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마치 강제수용소와 같았죠."

바닥에서 잘 때는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자야 했고, 간수들은 고문의 일종으로 매일 밤 2~3시간마다 수감자들을 거칠게 깨웠다.

즈미시에는 목사이면서 우크라이나의 북음주의 개혁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자신이 그들 중에

서 유일한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는 사람들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질문이 많았어요"라고 말했다. "출소 후에도 연락은 계속되고 있어요. 감방에서는 남편을 '피의 목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안나가 웃으며 말한다. 즈미시에는 감사하게도 12월 23일에 석방되었다. 그들은 몇 달 안에 벨라루스로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2022년 첫날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피난처를 찾아 떠났다. 그러나 2월이 되자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안나가 임신중인 상황이라 즈미시에와 안나는 벨런타인데이인 2월 14일에 키예프를 떠나 폴란드 바르샤바로 갔다.

동유럽 난민을 위한 교회

폴란드에서의 생활은 츠비다룩 부부를 포함한 벨라루스인과 우크라이나인에게 어려웠다. 언어도 모르고, 생활비는 비싸고,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매일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 세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질문이 많았어요"라고 말했다. "출소 후에도 연락은 계속되고 있어요. 감방에서는 남편을 '피의 목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안나가 웃으며 말한다. 즈미시에는 감사하게도 12월 23일에 석방되었다. 그들은 몇 달 안에 벨라루스로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2022년 첫날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피난처를 찾아 떠났다. 그러나 2월이 되자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안나가 임신중인 상황이라 즈미시에와 안나는 벨런타인데이인 2월 14일에 키예프를 떠나 폴란드 바르샤바로 갔다.

로잔 운동의 스테프인 안나는 "세계 교회 공동체는 이 전환기에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폴란드에서는 즈미시에와 안나가 처음으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바르샤바에 있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그들은 곧 폴란드에 있는 난민들에게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해 지금 바르샤바에 있는 민스크의 선교사 친구와 목사와 함께 교회 개척을 위해 일하고 있다. 즈미시에와 교회 개척 팀은 바르샤바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유럽인들에게 북음 중심의 교제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교회를 구상하고 있다. 즈미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르샤바에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첫째, 자신들과 같이 독특한 경험을 가진 난민과 이주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다. 대부분 투옥과 고문, 상실에 대한 유사한 충격적인 경험이 있다.

둘째, 북음 중심의 공동체를 위해서다. 교회는 동유럽 지역의 공용어인 러시아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러시아어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이다. 안나는 "모든 종류의 국제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운 거예요"라고 말한다.

셋째, 전도를 위해서다. 어려움과 혼돈, 고통은 바르샤바에 있는 많은 비기독교 난민에게 반성의 기회가 되고 있다. 계속해서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가 영구적인 모임 장소를 찾고 있는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도 즈미시에와 안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고무적인 징후를 본다. 즈미시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 받았어요."라고 회상했다.

삶과 죽음, 몸과 영혼

"우리 모두에게는 우상이 있어요. 벨라루스가 나에게 가장 큰 우상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전 정말 벨라루스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감정과 힘을 벨라루스에 관련된 일에 쏟고 있었죠." 즈미시에게 말했다.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가장 많이 화가 나 있고 실망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인용한다.

Q.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A.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살든지 죽든지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거요. 예수는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갚으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그분은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카

락 하나도 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다.

"몇 달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난민 생활과 겪은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바르샤바에 오기 전이나 경찰이 우리 아파트에 들이닥치기 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안나에게 지난 2년은 저항 운동과 압제 정권을 선과 악이라는 흑백 논리로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더 큰 관점을 통해 보는 더 열린 마음으로 그녀를 인도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그에게 나의 관점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공동체와 국민, 국가, 땅, 이 모든 것을 원하지만 모든 것이 주된 사랑과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비록 우리는 벨라루스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요."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62. 김재성 (1886-?)

김재성은 1886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마지막에 거주했던 지역이 교동이었지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교동은 수원에 있고, 전국에 교동이 19곳에 있어 교동이 어딘지 확인할 방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교동에 거주하던 김재성은 19세가 되던 1905년에 단신으로 고향의 형 뺨 되던 23세의 상태와 함께 하와이 노동 이민자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해 3월에 그는 만주리아 기선을 타고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는 미국에서 Kim Chai Sung으로 통했다.

하와이에 거주한 지 4년이 되던 1909년 3월에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미국 북감리교 캘리포니아 연회 산하의 하와이 선교 연회 의 존 T. 존스 감독은 김재성을 하와이섬 하갈나우 지방의 권사로 임명하였다. 김재성이 이곳에서 노동자로 있었던 모양인데 권사로 파송받기는 처음이었다. 이해 하갈나우 지방에 파송된 최진태 목사는 이곳과 힐로와 올라까지 순회하면서 전도하였다. 김재성이 파송될 당시 본 교회에는 학습 교인이 4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6명이었다. 세례 교인 6명 중에는 김재성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 교회 교회학교에 직원과 교사가 8명이었으며 학생은 21명이었고, 200달러 시가의 예배당이 있었다. 김재성은 학습 교인과 세례 교인을 포함하여 원일 교인까지 심방하면서 권면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1910년 3월 보고에 따르면 어린이 한 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성인 11명에게 세례를 베풀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는데 1년간 사역한 김재성의 신실한 권사 사역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1910년 3월에 하와이 선교 연회를 소집한 에드윈 H. 휴즈 감독은 박희준과 함께 김재성을 마우이섬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임명하였다. 그즈음에 그가 하와이섬 하갈나우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것 같다. 그달에 흥치범이 스프레클스빌 지역에 파송되었는데 그는 이곳뿐만 아니라 하나 지역과 키파홀루 지역까지 맡은 순회 전도 목사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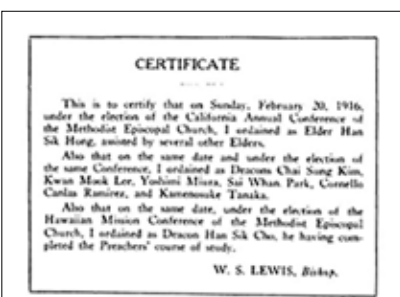
다. 그달의 교세에 따르면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와 인근 교회에는 학습 교인 35명에 세례 교인이 36명이나 되고, 스프레클스빌과 인근 지역에 교회학교가 3곳에 있었고 교사와 직원이 9명에 학생은 70명이었으며, 엠펜스 학생회에는 14명이 등록되었고, 750달러 시가의 예배당이 있었다. 그러나 사역한 지 1년 후에는 학습 교인이 19명에 세례 교인은 30명으로 축소되어 교세가 저조했다. 그런데 김재성이 파송된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가 스



범 목사가 감리사를 대신하여 하와이 각 섬의 한인 감리교회 상황을 보고할 때 김재성은 동역했던 최 전도사가 별세하여 스프레클스빌에 산재한 약18개의 한인감리교회를 순회하며 복회하였다고 보고했다. 이후 1915년까지 하와이 선교 연회가 그를 지방 전도사로 파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전도사로 사역한 지 4년이 되던 1916년 2월에 김재성은 미국 북감리교 캘리포니아 연회의 감독이었던 윌슨 S. 루이스 목사에게서 안수받아 집사 목사로서 준회원이 되었다. 이날 준회원이 된 목사는 7명이었는데 김재성 외에도 한국인으로 조한식, 이관목, 박세환이 있었고, 외국인으로 요시미 미우라, 코르넬로 캔라스 라미레즈 그리고 카메노 스키 다나카가 있었다.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달인 그해 3월에 김재성은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 본토로 이주한다. 그래서 그의 하와이 사역은 1909년부터 1916년까지 약 7년간 한인 노동자를 중심하였다.

1916년 3월에 김재성은 공부하기 위하여 김진형, 안득현, 김길석과 함께 하와이를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그는 이곳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학비를 벌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와 1918년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연회의 집사 목사로서 준회원 4년차에 이르렀으나 하와이 선교연회에 소속했으나 미국 본토에 있었는데 그해 연회록에는 그가 가와이섬의 막가웰리와 골로아 지방의 한인 선교를 위하여 파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를 냈다.

1920년에 모인 하와이 선교 연회록에는 김재성이 집사 목사로서 준회원 4년 차에 있는 캘리포니아 연회 회원으로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제일한인 감리교회 계삭회 회원으로 소개하면서 선교지 임명 없이 유학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해 3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70여 명의 한인이 모여 제1회 삼일절 기념식이 있었다. 이날 김재성이 연설하여 그의 존재감을 알게 된다. 이날 순서는 아래와 같았다. 오전 10시에 흥치범의 개회로 제1부가 있었고, 제2부는 조성환의 개회로 애국가를 병창한 후 김진형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고, 정해경 부인이 독창했으며, 최재덕이 '독립운동의 제2계급에 나온 우리'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후 박순애 부인이 독창했고, 이어서 김재성이 '기념'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이어서 염세우, 김중혁, 박순애, 차정석이 차례로 연설하였다. 염세우의 인도로 기도하고 6시에 폐회한 후 만찬회가 있었다.

그해 12월에 김재성은 2년 만에 로스앤젤레스 성경학원 성경과를 졸업했다. 당시 학장은 어니스트 G. 마셜이었고,



바이올라 대학 졸업 사진 (1920년 12월)

해 하와이 선교연회는 김재성이 학업이 아니라 사업을 한다고 보고하면서 캘리포니아 연회에 그의 회원권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듬해인 1922년에 하와이 선교연회는 김재성이 여러 해 동안 본 연회 산하의 어떤 선교 지역도 임명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연회 회원권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본 연회는 D.H. 크라인펠터가 김재성에게 편지를 보내서 본 연회 회원으로 계속 있을 것인지를 질문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더하여 캘리포니아 연회가 그의 회원권에 관하여 직접 그에게 질의하도록 요청했다.

그해 3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80여 명의 한인이 모여 제2회 삼일절 기념식이 있었다. 제1부에 이어서 제2부인 저녁 예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후 김재성이 기도했다. 그 후 강영각의 나팔과 풍금 연주, 나성 구미위원장 보고 및 사건 처리, 강영각의 음악, 독립 원조와 본 지방에 거주하는 동포 전도에 대한 의견 진술, 원동 임시정부 광고, 서간도 참상에 대한 사진 처리, 애국가 및 만세 제창 후 폐회하고 다과를 나누었다.

1924년 이후 미국 감리교 캘리포니아 연회 회원 명단에서 김재성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김재성의 이름을 신한 민보에서 보게 된다. 1928년 4월에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이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는데 김진일과 김배혁이 자기 사업을 뒤로하고 장례비를 관리하고 기타 모든 법절에 많은 수고를 하였다는 보도를 읽을 수 있다. 많은 한인이 부조한 가운데 1달러를 기부한 김재성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다뉴바에 있는 한국어 학교인 고려학원은 운영 기금금을 모금하기로 한 후 이듬해인 1929년 1월에 모금한 총액이 511달러 30센트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본급 보관 위원이었던 송태은과 김성수 그리고 오종국이 본 학원 기금금을 낸 이름과 금액을 광고하였는데 이 광고에서 김재성이 2달러를 기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전명운 의사의 부인이 별세했을 때 김재성이 50센트를 부조했음을 알게 된다. 김재성의 이름이 1928년 5월에서 멈춘 후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damien.sohn@gmail.com

- 1909년~1916년 한인 노동자 중심 하와이 사역
- 1905년 하와이 노동 이민자의 대열 합류
- 1909년 하와이섬 하갈나우 지방의 권사 임명
- 1912년 권사로서 신실한 자세 인정, 지방 전도사 임명
- 1916년 윌슨 S. 루이스 목사에게 안수받아 집사 목사

스프레클스빌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보이지만 정확한 통계를 찾을 수 없다.

1911년 1월에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하와이 선교 연회를 인도한 에드윈 H. 휴즈 감독은 교세가 약화된 상황에서도 김재성을 마우이섬의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박희준과 함께 다시 파송하였다. 그런데 그달에 본 교회에 파송을 받은 한인 목사는 김재성이 하와이섬 하갈나우 지방의 권사로서 함께 협력했던 최진태였다. 그도 이 지역의 순회 전도 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듬해 곧 1912년 초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 연회에서 윌리엄 해리스, 차운종, 김광현, 최은숙, 김형근, 이관목 그리고 박종수와 함께 김재성은 권사직에서 지방 전도사로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회 성장과 관련 없이 김재성이 보여준 권사로서의 신실한 자세를 인정한 것 같다. 1913년 연회에서 흥치

1918년 초에 김재성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고, 학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했을 것이다. 돈이 아쉬웠을 터인데 김재성은 그해 3월에 이경의의 병원비로 거금에 해당하는 1달러를 기부했다. 그해 가을에 그는 조득린과 함께 오늘날 바이올라 대학으로 알려진 로스앤젤레스 성경학원 성경과에 입학했다.

김재성은 1919년에도 송현주와 C.C. 라미레즈와 함께 미국 북감리교 캘리포니아 연회의 집사 목사로서 준회원 4년 차에 있으면서 하와이 선교연회 회원이었는데 김재성은 선교지 임명 없이 유학하고 있다고 그해 연회록이 기록했다. 그와 함께 흥치범도 선교지 임명 없이 유학하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공부하던 김재성은 그곳 한인들의 조국 광복 운동에 참여했고, 그해 6월에는 국민 의무금으로 국민회에 2달러 50센트

부학장은 라이라 C. 벨저였으며, 1920년 겨울 학년 담임선생은 존 R. 트로프 리지였다. 그와 함께 졸업한 '1920년 겨울 학년'은 그를 포함하여 17명이었고, 이 중 남학생은 6명이었고, 여학생은 11명이었으며, 아시안으로서는 그가 유일했다. 졸업 앨범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의 좌우명이었다고 소개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921년에도 김재성은 미국 북감리교 캘리포니아 연회 집사 목사로서 준회원 4년 차에 있으면서 하와이 선교연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목회지 임명 없이 로스앤젤레스 성경학교에서 유학자 비 활동 교역자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대학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913-4499, www.lsgc.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수-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714) 481-2779, facebook.com/srscsca 1645 Beverly Blvd.,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영어권 (영·스·K·C·K·영·드·프·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0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c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714) 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돌며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수-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327, www.wmccs.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살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Love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66 살비치 리저널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부)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가족원 왕: 박순홍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사역: 1. 영성사역자 2. 교인상담사 3. 가정사역자 4. 네트워킹사역 사역: 1. 복음화 사역 2. 가정사역자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 www.elfpsfamily.org Tel: (213) 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일일예배: 오전 9:30(영·미·프·센·터)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 446-6202, www.gro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일 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g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464-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 M 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일 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히슬스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영성경이 일어나서"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4)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클린제일교회)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1장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드리는 경고 (4)

5) 두 가지 추가 질문

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속이거나 무례하게 대하거나 여러분의 집이나 마을을 불 지르거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부녀자를 죽이거나 여러분을 감옥에 보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가? 마찬가지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이며 미친한 벌레와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적대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정신 나간 사람일 것이다.

나) 여러분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만일 통치자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다면 온 세상은 제멋대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 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다면, 통치자들은 당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반드시 벌주어야 하지만, 무한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문제인 자

신에게 죄를 짓는 것과 자신의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비논리적인 사람이다.

*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

성경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 말하는 진리는 이러하다. 악한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관심과 방향을 아주 바꾸어 놓고 말았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여,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어떤 나쁜 일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좋은 일에도 대해서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적대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정신 나간 사람일 것이다.

6)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에 대한 답변

(1) 비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독을 마시게 할 수는 있다.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고의적으로 독을 마시겠는가?

* 왜 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가?

(2)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회심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거룩한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참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실제로 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3) 비록 여러분이 은혜 없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지만, 여러분의 고의적인 범죄와 무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상실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4)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목적과 수단을 분리하지 않고, 목적과 수단을 함께 결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를 구원하시며, 아무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자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발을 찰기로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서 "만일 하나님께서 내 토지에 곡식이 열매 맺게 할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거나

그렇지 않건 간에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있는데도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실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 실험을 해보라.

7)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정통주의는 자유의지가 부패했으며 악한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사람에게에는 이중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는 자연적인 것으로 우리의 이성이나 자유 의지 같은 것인데 이것은 상실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윤리적 특성을 가진 것인데 우리의 거룩성을 말하며 이것은 우리가 상실했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다.

* 죄는 영적인 자유 의지를 잃게 한다

의지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거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에 끌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의지는 죄악된 편견의 노예이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이고 또한 의지의 경향성이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변명할 수 없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여러분은 더 나빠질 것이며 형벌은 더 커질 것이다.

younsklee@hotmail.com

시니어 목회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창의성의 성품으로 새로운 인생 꿈꾸기

"내가 이 졸업장을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미친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모르겠구나.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겠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가 건축학교를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주며 한 말씀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건축가로 불리며 찬사를 받는 가우디지만, 학교에서 그는 늘 꼴찌를 도맡아 하는 괴짜 중에 괴짜였었다.

가우디는 1852년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몸이 약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물끄러미 자연을 관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땅히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도 없어서 주변의 자연과 벗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모습, 나뭇가지가 가지를 뺐은 모습, 지중해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 몬세라트 산의 기이한 바위들이 장관을 이룬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가우디는 세밀하고 세심하게 자연을 관찰하며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운 창의성을 키웠습니다. 차곡차곡 마음에 담아둔 경험들은 가우디가 건축가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우디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하늘과 구름, 물과 바람, 나무와 식물, 동물과 곤충, 산과 바위 등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우디는 높은 곳은 높은 대로, 낮은 곳은 낮은 대로, 어느 때는 자연을 통째로 가져온 것처럼 새로운 방법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가우디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히는 구엘 공원(Parc Guell)은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마치 동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에 빠지게 할 만큼 특별한 창의성이 빛났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재료들은 기존의 건축가들이 해오던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제품을 구입해서 재료를 깨뜨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일이나 도자기 공장에서 폐기한 것들을 수집해 플라주 형식으로 새롭게 붙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상상만으로도 새로운 방법이었지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가우디에게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가우디는 창밖을 조용히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의 스승은 바로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불어 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새 일을 행하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까이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이사야 43장 19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인생을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시도하고, 그분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는 오늘이야말로 가장 창의적이고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다음세대 성품교육과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and 3 rows of church listing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contact info, and a small church icon. Churches include Galbraith, Danjok, Hongmeil, Bockstein, Bannell, Boston, Saesang, Alkasa, Anger, Yeongsang, Killin, Winstone, Tacoma, and others.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성숙한 성도는 먼저 자신을 살핍니다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요즘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장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 최고 의사 5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어온 라시드 바타르 박사는 그의 책 [100세 인생도 건강해야 축복이다]에서 '건강하게 장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 자신의 철저한 관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관심입니다. 50대 초반의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를 하였는데 콜레스테롤과 당뇨의 수치가 한계점에 이르러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습니다. 집사님은 식단을 조절하고, 걷기 운동을 하고, 아침과 저녁에 당수치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저녁에 처음으로 당뇨 기계를 구입해서 당수치

를 측정하고 있는데, 집사님의 집에 교제를 나누러 온 권사님이 자신도 한 번 당수치를 검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권사님은 2년 전에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신 권사님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의사를 만나 건강 검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의 요청에 따라 당뇨 기계를 가지고 권사님의 당수치를 측정해 줍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검사에 응했던 권사님의 당수치가 289로 나옵니다. 집사님과 권사님은 깜짝 놀랍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 검사를 하였지만 당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집사님과 집사님의 남편이 권사님께 괜찮냐고 묻습니다. 당뇨병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

제가 없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당수치가 너무 높아 당뇨 합병증에 걸리면 손가락과 발가락도 절단해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긴장감을 줍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은 얼굴에서 평안함을 잃기 시작하며 근심의 얼굴에 쌓입니다. 집사님과 권사님은 서로 격려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집사님의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더니 당뇨 검사를 하려면 알코올로 손가락을 잘 닦은 후 검사해야 한다고 말해 줍니다. 권사님은 알코올 소독솜으로 손가락을 닦은 후 다시 당뇨 검사를 합니다. 적당한 긴장감이 흐른 후 당뇨 기계에서 삐익 소리가 나더니 당수치가 나옵니다. 69! 알고 보니 권사님이 당뇨 검사를 하기 전에 탁자 위에 있던 배를 손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의 손에 배즙이 묻어 있어서 당수치가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평안함을 되찾았습니다. 권사님의 손에 묻은 배즙이 씻겨진 후에 올바른 검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편견과 생각이 나를 잘못된 판단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넓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마7:5) songkpkak@hotmail.com



2023 밀알장학금 수여식 사진

남가주밀알선교단 2023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열어

총 102명에게 128,000달러의 장학기금 전달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주관하는 2023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월16일(월) 오전 11시 부에나팍에 있는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담임 목사)에서 장학생들과 가족, 친지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장학생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다. 비록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위대한 사역에 사용하신다. 가나안 정탐에 용감히 나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부정적이고 수동적이지 아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원대한 꿈을 꾸며 새로운 역사 창조에 도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위한 유익한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중희 남가주밀알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남가주밀알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되어 '밀알 스토리' 영상 상영과 양희원 켈스테이트 롱비치 대학 교수의 기도, 심상은 목사(남가주밀알 부이사장, OC교회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고, 장학생 정요한 학생의 특송과 이역희 남가주밀알 이사장의 감사의 말씀에 이어 이은철 UMC 원로목사의 축도로 수여식이 마무리되었다.

심상은 목사는 '새 역사에 도전하라!(민수기 14장 6~10절)'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밀알

이역희 이사장과 심상은 부이사장, 이종열 장학위원장, 이은철 목사, 이재형 목사, 양희원 교수, 이종희 단장, 그리고 이준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 미주장애인장학생 7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22명(James Worldwide 장학생 10명, Moon Foundation 장학생 10명 포함),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제3국 및 중남미 장학생 3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20명 등 총 102명에게 128,000달러의 장학기금이 전달되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2,876,200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수여되는 장학금은 작년 10월에 개최된 '2022 밀알의 밤'을 통해 모금된 재원으로 마련되었다. 밀알 이준수 목사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밀알의 밤을 적극 성원해주셔서 풍성한 장학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합력해주신 후원자님들, 교회, 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장학금을 받게 된 102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하며 보다 큰 소망과 비전을 지닌 채 학업에 정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독립운동 사적지 표지판 제막식에 참석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독립운동 사적지 제막식

윤병규, 이교담 등을 비롯, 36명이나 되는 독립운동가 배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위해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운동 사적지로 공식 지정됐다. 국가보훈처는 "2023년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13일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독립운동 사적지를 알리는 표지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계 최초의 한인교회로, 초기 하와이 이민사회의 친교와 교육의 중심점 역할을 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초창기 교인들이었으며, 교인들은 어렵게 일해 번수입을 모아 꾸준히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낸 역사적 의미가 큰 교회다.

1903년 미국 하와이에 세워진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국가보훈처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종교적 역할을 넘어 한인 이민자들의 하와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은 물론 독립운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며 사적지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으며, 윤병규(1977년 독립장), 이교담(1999년 애국장), 문포라(2019년 건국포장) 등 무려 36명이나 되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이 중 8대 현승 담임목사는 상해임시정부 총무를 역임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1913년부터 1918년까지 '탁사'(현재는 장로직분)로 봉사하며 한인 교육기관 설립에 역할을 했다.

국가보훈처는 "하와이 지역 독립운동사적지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을 본격 추진하며,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를 시작으로 총 14곳에 표지판을 설치해 하와이 독립운동 역사를 알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한의준 담임목사는 "어느 일반단체나 종교기관도 30명이 넘는 독립운동자를 배출한 곳이 없다. 독립운동사적지 현판 제막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의 복음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여성목사회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여성목사회 이취임식

신임 회장 김정환 목사, 박정희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장 이취임식이 21일(토) 오전 10시30분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6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정환 목사는 "임기동안 목사회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목사회를 이끌겠다"고 말

했으며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박정희 목사는 "제13대 여성목사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신승훈 목사(남가주교계연합대표회장)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일꾼(고전 4: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태환 목사(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이어 이취임식을 갖고 남가주목사회와 남가주여성목사회 회기 이양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테너 오위영 목사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모든 순서는 주재임 목사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산호세교협 신년하례회를 가진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앞줄 왼쪽서 5번째 회장 박춘배 목사

산호세교회협의회 2023년 신년하례회

"함께 연합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에 힘쓰자"

산호세 교회협의회(회장 박춘배 목사)는 지난 8일 산호세 제자들 교회(담임 박춘배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하례 모임은 예배와

식사, 친교로 진행 됐다. 예배는 김평욱 선교사(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의 기도에 이어 서광원 목사가 설교에 나서 "산호세지역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에 힘쓰며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는 교회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했다. 또 신년하례회에서는 교회 연합과 연합한 교회, 코로나 팬데믹의 종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한목소리로 합심 기도를 했다.

산호세지역 20여 교회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은 박춘배 목사의 축도 후 윗놀이와 선물 교환으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회장인 박춘배 목사는 "3년여 동안의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도 새해를 맞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 목회자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복음주의장로회총회 2023년 신년하례식 열어

미주복음주의장로회총회(KEPCA, 총회장 전모세 목사) 2023년 신년하례식이 지난 1월 9일(월) 오후 5시 제이제이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전지승 목사(총회 부회장의 사회로 열려 윤갑식 장로(총회 부회장의) 기도, 안혜정 전도사(오픈지힐스한인교회의) 특송, 전모세 총회장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의 축복'이란 제목의 설교, 김재연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신년인사의 시간에는 증경총회장 소개, 총회

임원과 신입총회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나형길 목사

(총회 회계)의 사회로 선물교환 및 친교의 시간을 통해 사랑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센터메디컬 그룹 설맞이 떡국떡 나눔 행사

센터메디컬그룹(대표 제이 초이)이 설 맞이 떡국떡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19일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와 20일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19일 오렌지카운티와 20일 LA 행사도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몰려 긴 줄을 이룬 가운데 시작 35분 만에 준비한 양이 모두 동났다. 센터메디컬 그룹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한 센터메디컬그룹은

내년에 더욱 알차고 나아진 행사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센터메디컬그룹 문의 전화: (714)980-3532 (기사제공: 센터메디컬그룹)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교협 “호산나 청소년 대회”

혼탁해져 가는 세상에서 오직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10년 만에 개최되는 ‘호산나청소년대회’에 교회 소속 청소년들을 초청한다. 본 대회는 참빛교회(담임 황주 목사)에서 2월 3일(금) 오후 7:00-10:00, 2월 4일(토) 오후 6:00-9:00에 열린다.

▲문의: 청소년부와 권기현 목사 201-983-7544

퀸즈장로교회, 특별 부흥회

“살아나는 믿음, 승리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특별 부흥회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개최한다. 권호 목사(한국 합신대 교수), 임도균 목사(한국 침신대 교수)를 강사로 2월 1일(수), 2월 4일(토) 오후 8시, 2월 5일(주일) 1부~4부 예배에 말씀을 전한다.

▲문의: 718-886-4040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일일 부흥성회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에서 2월 11일(토)~2월 12일(주일)까지 일일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일일 부흥성회 강사는 류명재 목사(시드니 실로암장로교회 담임)이다.

▲문의: 718-229-0858

뉴저지 갈보리교회, 소리엘 지명현 목사 간증 찬양예배

뉴저지 갈보리교회(담임 문정웅 목사)에서 1월 29일(주일) 오전 11시 소리엘 지명현 목사 간증 찬양예배를 드린다. 교회주소: 572 Ryders Ln. East Brunswick NJ 08816

▲문의: 732-613-4930

필그림선교교회,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 간증집회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종길 목사) 2월 3일(금) 오후 7시 30분 금요예배다짐때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 간증 집회로 진행된다. 주소는 80 Commerce Way, Hackensack, NJ 07601이다.

▲문의: 201-461-1225



신년감사예배 후 다함께 기념촬영의 시간을 가졌다

뉴욕한인장로연합회 2023 신년감사예배

“전도와 선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뉴욕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21일(토)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본 예배는 유일용 장로(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송윤섭 장로(직전회장) 대표기도, 최원호 장로(부회장) 성경봉독, 김홍석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설교로 진행됐다. 김홍석 목사는 “풍량을 이기는 믿음(마태복음 14장 22-33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가운데 풍량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풍량을 이기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 했듯이 이 세상의 거친 풍량과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세상의 풍량을 이기도록 하시며, 길을 열어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 2023년이 되길 축복한다”고 전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뉴욕 교계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여 한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2023년 뉴욕장로연합회, 뉴욕장로성가단에 속한 모든 장로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다함께 기도했다. 이어 이주수 장로(부회장)의 헌금기도, 이명삼 선교사(Sunny Mission, 니카라과)의 선교 보고 및 감사, 나눔과 섬김 순서를 통해 전모세 원장(사랑의집), 심의례 전도사(새생명선교회), 전선덕 권사(코코강애인협회)에게 각각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이주수 장로(다민족선교대회 준비위원장), 이형근 장로(단기선교상임준비위원장)에게 위촉장 및 임명장을 수여했다. 송정훈 장로(부회장)의 광고, 황규복 장로(회장)의 회장 인사, 김홍석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뉴욕한인장로연합회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도와 선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표어 아래 맨하탄 47가 브로드웨이 1차 전도, 후러스 2차 전도, 제10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9월 17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상 기자〉



뉴욕평강교회, 담임목사 취임 및 은퇴 파송식

이종태 담임목사 취임, 안관현 목사 은퇴

뉴욕평강교회는 이종태 담임목사 취임 및 안관현 목사 은퇴 파송식을 1월 22일(주일) 3시 30분에 본교회에서 드렸다. 김설 선교부장의 인도로 기도 안정수 권사, 말씀봉독(왕하 2:114) Grace Kim과 Jennifer Kim, 김폴교훈 집사의 전후임 목사 소개, 은퇴 목사 감사, 담임목사 서약, 담임목사 취임 기도와 선교, 은퇴 목사 파송 기도로 진행됐다. 이어 축하영상은 김인기 목사(북미가사원장),

김필립 선교사(캐나다 YWAM), 김광성 선교사(네팔)가 전했고 Sarah Kim, 최형영 집사는 파송하는 안관현 목사께 감사의 글, 취임 및 감사패 증정,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안관현 목사는 올해 설립 43년을 맞이한 뉴욕평강교회에서 지난 26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다 은퇴했으며 이종태 목사는 2021년 1월부터 동사 목사로 섬기다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홍현숙 기자〉



임직감사예배 후 장로, 안수집사 임직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한인동산장로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총 33인 임직

한인동산장로교회(이풍삼 목사)는 1월 15일(주일) 오후 4

시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33인의 교회 일꾼들을 임직했다. 임직자는 장로 4인(이영근, 오선웅, 이오진, 김태종), 안수집사 4인(김진섭, 채성호, 정기호, 황재선), 권사 11인(고은자, 곽은희, 김미영, 배용련, 서현숙, 유명숙, 이명숙, 이수연, 이이순, 정은영, 현숙경), 명예권사 14인(고선애, 김순자, 김신복, 김영훈, 박인원, 변정미, 서양자, 유순이, 이정자, 장순금, 장주순, 조옥례, 최은숙, 홍애란) 등이다.

본 임직식은 RCA 뉴욕한인목회자협의회(AKRC) 목회자들이 임직예배의 순서를 맡았다. 이풍삼 목사의 사회로 류승례 목사(어린이양육장로교회)의 대표기도 박희열 목사(회장, 뉴욕빌립보교회)가 “오후 5시에 온 일꾼(마태복음 10장 1-16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직자들은 문답을 통해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실히 믿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므로,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를 서약했다. 김기호 목사(뉴욕중앙장로교회)는 임직자들에게, 조대형 목사(뉴욕실로암장로교회)는 교우들에게 권면을 했다. 이영근 장로의 답사, 이은수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2023 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첫 사랑을 잊지말라”

뉴욕교협 2023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이 주최한 2023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이 1월 22일 오후 5시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2023년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어로 달려간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함께 손잡고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뉴욕이 정말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준비위원장 이창종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반준열 목사(원주민선교분과), 성경봉독 김일태 평신도부회장,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이풍삼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 헌금송(뉴욕권사선교합창단), 헌금기도 손성대 장로(특별협력위원회), 광고 유승례 목사(총무), 축도 이원호 목사(KAPC 가든노회 노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이풍삼 목사는 “나도 그런 놈들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계 2: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주님은 예배소교회에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한 것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채워져 있다. 나도 그 놈들이 밟다.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여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를 미워하기보다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용서하라”고 전했다.

2부 신년 하례식은 우진숙 국장(1660K-Radio) 사회, 임지윤 목사(기획위원) 통역, 송우룡 목

사의 트럼펫 연주 후 미·한국 국제재단(조동현 이사장), 교협 신년인사(이준성 회장), 전광성 목사(세미나기획위원장)의 환영인사가 있었다.

이날 특주는 바이올린 허은무 성도의 “나의 찬미”, 오버에 이정석 음악박사 “The Mission”, 뉴욕 팬플릿 찬양 선교단 “Amazing Grace”를 연주했으며 축가는 소프라노 서수연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를 찬양했다.

이어 단체장 및 교회리더들 소개 및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김의환 뉴욕총영사, 뉴욕주 상원의원 존리우, 연방하원의원 그레이스 맥, 뉴욕주 하원의원 론킴, 뉴욕시의원 린다리 등이 인사를 했고 최길중 목사(오순절 성경교단 감독), 이만호 목사(증경회장단 의장), 윤세웅 박사(Faith 신학교 총장), 박근재 목사(뉴저지 교협 회장), 채양규 목사(필라 교협회장), 유상열 목사(교역자 연합회 회장), 테렌스 박(아시아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대표), 김명미(KCS 회장), 박희진(경찰자문회 회장) 등이 인사를 했다.

이날 시상에는 목회자상 이병홍 목사(증경회장), 평신도상 송윤섭 장로(뉴욕장로연합회 직전회장)가 받았으며 이어 김명미 KCS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변호자 최홍경, 회계사 신석호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어 정숙자 목사(신년하례 준비위원장) 폐회 및 만찬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뉴욕실버선교회 신년하례예배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실버선교회 2023 신년하례예배

“포기하지 않는 실버”, 2차례 단기선교 진행

뉴욕실버선교회(대표 김재열 목사)는 15일(주일) 오후 5시 뉴욕센트럴교회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인도 김재열 목사(대표), 기도 황규복 장로(회계), 특송 실버선교회 찬양대(지휘 문삼성 목사), 설교 이지용 목사(서기)로 진행됐다.

이지용 목사는 “포기하지 않는 성도(누가복음 5:17-26)”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주님은 길이 되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의심의 기왓장, 불신의 기왓장, 욕심과 교만의 기왓장을 걷어내고 주님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전했다.

중보기도 순서에서 노성보 목사가 미국과 모국의 정치안정과 신앙부흥을 위해, 조철재 장로가 뉴욕실버선교회와 뉴욕교회들의 성장을 위해, 황양

옥 권사가 파송된 실버선교사들과 나라 복음화를 위해, 김경열 목사가 풍문들과 교회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

김재열 목사가 2023년 교회의 표어인 골로새서 2: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으로 신년사를 전했다.

이어 광고 이형근 장로, 축도 문덕원 목사(이사), 오찬기도 황달원 장로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실버선교회는 2023년 봄학기를 2월 27일(월)부터 뉴욕참교회에서 시작하며 실버선교회 찬양대는 5월 21일에는 제2회 찬양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기선교도 회복되어 올 해는 2차례 진행될 예정으로 5월 8일 운두라스 단기선교, 뉴욕연합장로교회와 연합으로 2차 단기선교를 계획중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러신학교 총장 취임예배에서 알리엄 펜넬 설교학 명예교수가 총장스들을 그들리 총장에게 입려주고 축하하고 있다

플러신학교 데이빗 임마누엘 고틀리 총장 취임예배 “플러는 기독교 공동체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

플러신학교 데이빗 임마누엘 고틀리 6대 총장 취임예배가 21일(토) 오전 10시 레이크 에비뉴교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열렸다. 취임식은 제임스 아빙턴 교수(에모리대학교) 오르간 연주에 맞춰 교수진들이 입장했으며 다니엘 메이어 플러 이사회의 의장이 환영사를, 빅터 고도 파사데나 사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성경봉독과 찬양대가 특송, Jacqueline A. Thompson 목사(오클랜드 앨런템플 침례교회)가 기도한 뒤, 후안 셀리나스 자매와 라티노 찬양팀이 특송했다. 이어 Brad D. Strawn 박사의 인도로 공동기도문을 낭독했으며 회중들이 헌정찬송을 불렀다. 이날 총장 취임식은 다니엘 메이어 플러이사회의 의장 집례로 열렸다. 메이어 의장이 고틀리 박사에게 목적을 전했다며 고틀리 박사 서약, 총장 선언했으며 총장 인수기도를 Alexis D Abernethy 박사(본교 최고 학술관리 책임자 겸 임상 심리학 교수), 아모스 옴 박사(선교와 신학대학원 학장 겸 신학과 선교학 교수), 테드 코세 박사(학장, 최고운영 책임자, 플라심리 및 가족치료 센터 디렉터, 임상 심리학 부교수), 오스카 가르시아 존슨 박사(다양

성, 형평성, 포용성 책임자 겸 신학과 라틴계 연구교수), 셸리 후그스트라 박사(기독교대학협의회 회장)가 총장을 위해 기도한 뒤, 클리포드 팬너 박사(플러이사회의)가 환영의 메시지와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고틀리 총장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서의 세상(요 3:16-21)”이라는 제목으로 취임사를 전했다. 고틀리 총장은 “플러의 비전은 전통적인 미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기독교 공동체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폭넓게 자리 매김하는 것”이라며 “플러의 사명은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든 교회에 충실하고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교회는 좋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세상은 좋은 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플러는 충실한 목회, 학업, 정신 건강 및 지역 사회 지도자를 형성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플러의 능력을 확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라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러셀 와카드 목사(새시온침례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9차 OC기관 및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사막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

제9차 OC기관 및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21일(토) 오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과 심상은 목사(OC교회협회장, 갈보리선교회회담임)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신원규 목사(OC교회 이사장, 좋은마음교회)가 환영사를 했다. 이어 김용진 장로(OC장로협회장)의 기도와 신용 회장(OC전도회연합회)성경봉독, 한기홍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한기홍 목사는 “불들어 주시는 은혜(사 41:10)”라는 제목으로 “경제침체 소식, 인종갈등 등 우리주변에서 들리는 소식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 중요한 사실은 망막한 사막 같은 상황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불들어주신다면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귀한 단체들 섬기는 여러분에게 불들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승리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이 불들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오렌지카운티의 각 단체마다의 비전을 세우셨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불들어

주실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위해 모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주셔서 부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미국에 대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한다.”고 설교 했다. 이어 심상은 목사 인도로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박재만 목사가 ‘한국과 미국 대통령, 한인 정치인들이 더욱 더 세계평화에 쓰임 받도록’, 박용일 목사가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이하여 한민족이 자손대대로 형통하도록, 김도영 장로가 ‘교포사회와 한인회, 각 기관 및 단체의 큰 발전을 위하여, 영연민 목사가 OC교회, 목사회, 장로회, 전도회 등 모든 교계 단체의 사역을 위하여, 박대근 목사가 신학교와 교육단체와 선교단체를 위하여, 한기홍 목사가 미셸스틸박(48지구), 영김 (40지구) 연방하원의원과 조봉남 OC한인회장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윤성원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윤우경 이사 사회로 시작된 친교시간은 지경집사가 특송했으며 미셸스틸박, 영김, 조봉남, 이상명이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민경엽 목사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9차 OC기관 및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리토스장로교회 신년축복성회에서 조엘 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세리토스장로교회 신년축복성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조엘 김 목사(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총장)가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열렸다. 22일(주일) 오전 11시30분 권영일 목사 사회와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마지막 날 집회는 김성수 장로가 기도했다. 이어 조엘 김 목사가 박규성 목사 소개로 단위에 올라 ‘변함없는 하나님(수 1:1-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엘 김 목사는 “미국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미국에 거하는 한인교회는 줄어들고 있다. 유학 등 이주자들이 감소하고 한국으로서의 역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인 인구중 10년 미만 거주자는 4분의 1도 안되고 2세 3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민교회들의 2세들이 교회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변화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변화 속에 이어오는 일중예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레슨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

기억하라’이다.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정체성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게 된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끝없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드루번 째는 ‘의지하라’이다. 변화 속에서 기도와 믿음이 넘치는 것이 아닌 두려움과 걱정이 넘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변화하는 미국을 볼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적은 것 같다. 지도자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막는 모습을 보게 되는 데 너무나도 약해있어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담대하라고 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의지한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박규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플라워마운드 24주년 기념예배에서 김경도 담임목사(사진 왼쪽)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설교동역자를 맡은 김연희 목사

플라워마운드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예배 “믿음으로 행동하고 수고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플라워마운드교회(담임 김경도 목사) 창립 24주년 기념예배를 22일(주일) 오전 11시에 가졌다. 김경도 목사는 “우리교회가 이 지역에 개척된 지 24년이 되는 복된 날이며 한국전통 명절이기도 하다. 24년 전 이곳은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으며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지역은 정말 시골이었다. 그러나 한인들이 조금씩 이주해서 언젠가 한인교회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김 목사는 “개척할 때 당시 섬겼던 교회에서 7가정을 개척했으며 함께 하게 되었으며 그중 반이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라 언급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애써왔는데 하나님은 좋은 교회로 세워주시고 계시다. 앞으로 플라워마운드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지속적으로 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인헨리 집사가 기도했으며 헨시바 성가대가 특별찬양했다. 이어 플라워마운드교회가

1999년 창립때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상영됐고, 찬민 어린이가 간증했으며 김연희 목사 임주형 사모의 자녀 김희은 어린이 헌아식을 가졌다. 이날 김경도 목사는 “좋은 교회(살전 1:2-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 질문하며 “오늘 본문에 좋은 교회의 모습이 나온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좋은 교회였다. 플라워마운드교회가 여러 지역 속에 아름다운 소식이 퍼질 수 있게 해서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막힘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가지를 결단하라고 하신다. 첫째 좋은교회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교회이다. 드루번 째 수고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다. 둘째 세째 소망으로 오래 참는 교회이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온 교인이 함께 드렸으며 본 교회 교역자들이 특송했다. 이날 예배는 김경도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서부교계 게시판

KAPC 총회 교육부 주관 ‘신구약 성경쓰기 대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홍기표 목사) 총회교육부에서는 동남부노회(노회장 이승로 목사)와 협력하여 총회 산하 모든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경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범위는 신약성경 혹은 구약성경(구약일 경우 신약성경 분량 이상)이며 방법은 △매일 성경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성경쓰기 노트에 날짜를 꼭 기재할 것, △번역본은 한국어든, 외국어든 자신이 선호하는 번역본으로 쓸 것,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하며 타자로 작성한 것은 받지 않음, △성경을 필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레터 용지 1장 분량으로 소감문을 적어 함께 제출할 것, △제출할 때 성명, 직분, 성별, 나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출석교회, 노회를 기재할 것 등이다. 기간은 오는 4월9일 부활절까지. 제출처는 로렐교회(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28, Duluth, GA 30096)로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4월22일(토)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상은 대상(1명) 금 세돈, 최우수상(2명) 금 두돈, 우수상(3명) 금 한돈, 장려상(10명) 금 반 돈이며 시상식은 5월 총회 석상에서 갖는다.

▲ 문의: (336)430-8749, (213)703-9961

통큰통독 저자 직강 일독학교

통큰통독 저자 직강 일독학교가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주최로 오는 2월 중으로 열린다. 강사는 주혜홍 목사이며 일정은 2월 6일부터 5월22일까지 16주간 열린다 시간은 오전반 오전10시부터 오후12시(조나눔 30분 포함), 저녁반은 오후 7시부터 9시(조나눔 9시부터 9시30분)이며 수강료는 120달러이다.

▲ 문의: (562)569-1189, (213)215-1310

효사랑선교회 시니어대학 봄학기 개강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시니어대학 봄학기가 오는 2월14일(화) 효사랑선교회 강의실(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에서 개강한다. 이번학기는 △화요일 프로그램으로 난타교실, 스마트폰 교실, 성경파노라마, 힐링댄스, 영어교실, 악기교실, 합창연습, △목요일 프로그램으로 음악교실, 영어교실(90분 수업), 하모니카교실, 미술교실로 진행되며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또한 특별강의로 화요일 악기교실(오후 2시30분-4시), 목요일 미술교실(오후1시-2시)가 열리게 된다. 등록비는 주2회 월 \$100(화, 목), 주1회 월 \$50(화 또는 목)이며 미술특별강의는 재료비 \$150이다.

▲ 문의: (562)833-5520

라틴아메리카 교육선교대회를 위한 탈북자매 찬양간증집회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라틴아메리카 교육선교대회를 위한 탈북자매 찬양간증집회를 27일(금) 오후 7시30분에 개최한다.

▲ 문의: (323)913-4499



아리조나열방교회 임직감사예배를 마치고 임직자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아리조나열방교회 창립16주년 임직감사예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리조나 열방교회 (담임 최용성 목사) 창립 16주년 기념 임직 감사예배가 지난 15일(주일) 오후 4시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신종락 목사(KPCA 서중노회 전 노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기덕근 목사(피오리아 베델교회)가 기도 후 서중노회 전 노회장 배선용 목사(파이오니아 선교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마16: 12-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배선용 목사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공생애 모든 사역을 통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시고 고치시는 생명사역을 하셨으며 완성하셨다”고 말했다. 배 목사는 “생명의 사역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며 “예수님과 접촉된 믿음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앙생활은 의무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은혜와 복을 주는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임직자들에게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사람이라며 주님이 기대하는 분량만큼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부족을 채우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용성 목사에게 열방교회 담임목사 취임패를 전달했다. 최용성 담임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2부 임직예식을 통해 정성호 집사가 안수집사로, 송국영, 이정자, 임건미, 장현주, 조연조 집사 등 5명의 집사가 권사로 임직했으며 이기성 시무장로 은퇴식이 진행됐다. 또한 최완식 집사를 명예장로로 추대하고 최 목사가 추대패를 증정했다. 이어 안맹호 목사(Dana Christian Mission)가 축사와 권면했으며 정성호 안수집사가 임직자를 대표해서 답사를 했다. 정 집사는 “임직자들을 위해 교육 권면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직받은 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금더 나아가 주어진 직분 담담히 순종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신종락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예장 백석총회, 설 명절 맞아 '사랑의 쌀' 전달

영안교회와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 1000포 전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예장 백석총회(장종현 총회장)가 서울 영안교회(양병희 목사)와 손을 맞잡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1000포를 마련해 전달했다. 백석총회는 지난 20일 서울 방배동 총회회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미자립 교회 목회자와 홀사모,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해

사랑의 쌀을 보냈다. 전달식에서 부총회장 김진범 목사는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중 나눔운동의 정신으로 사랑의 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모든 총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하는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서울역에서 노숙인 무료급식 사역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나누미 이사장 박종환 목사, 원장 김해연 사모가 참석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해연 사모는 "총회 차원에서 노숙인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이번에 사랑의 쌀을 지원해 주셔서 거리 노숙인들도 외롭지 않을 것 같다. 항상 봉사팀을 보내주시는 영안교회가 이번에도 귀한 쌀을 보내주셔서 노숙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직장 전도는 섬기는 마음으로... 관계 돈독히 해야"

살롬부흥 운동 전도일꾼 노하우

직장 동료, 단골 카페 주인 등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온 이들이 전국의 전도 책임자들에게 자신의 전도 노하우를 소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107회기 역점 사역으로 진행되는 '살롬부흥' 운동을 위해 이날 세미나를 마련했다. 전국에서 온 600여명의 살롬부흥 운동 전도일꾼(전도 책임자)은 '살롬 축복 전도'로 성장한 주

을 전하면 부흥의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직장 동료 10여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어 "유럽 출장 중 무너진 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게 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전도 대상자가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를 1년 동안 방문한 뒤 복음을 전한 경우도 있었다. 김원기(47) 집사는 "카페 사장인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도하며 사업과 자녀 문제의 응답을 받는 영적 체험을 했다"며 "처음부터 전도 의사를 밝히기보다 꾸준히 만나며 친구가 되면 결국 복음을 심을 수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성도들의 간증에 공감하며 살롬 전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예장합동이 부흥운동에 나선 건 최근 교세 감소세 때문이다. 예장합동은 교단 차원의 살롬 부흥 운동을 통해 교인 감소의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순웅 총회장은 "살롬부흥 운동의 기본이 되는 살롬 축복 전도법은 전도 대상자에게 평안과 평화, 축복을 기원하는 성경적 전도법"이라고 소개했다.



NCCK, 차별금지법 찬성 논란에 대처 방안 밝혀

19일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실행위 열고 대화위원회 구성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이흥정 목사)가 이에 대처할 대화위원회를 구성했다. NCCK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제71회기 1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NCCK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지켜내는 것을 전제로 대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가 지난해 총회에서 NCCK 탈퇴를 논의한 데 대한 조치사항이다. 두 교단은 NCCK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면 탈퇴를 거론했다. 이후 기감은 지난 10일 NCCK에 공문을 보내 'NCCK가 동성애

찬성 입장을 견지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예장통합 역시 지난 13일 보낸 공문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NCCK의 생각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실행위는 대화위원회를 통해 두 교단과 소통하는 동시에 기감이 구성한 NCCK대책연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동성애와 같은 한국교회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 신학위원회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뒤 보고하기로 했다. 이흥정 총무는 이날 실행위에서 "NCCK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실행위나 정기총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할 적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 동성애자를 위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하라는 특성상 확실화된 입장을 강제하거나 이를 집단으로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독교 인재 양성" ...한국CBMC·송실대 MOU

크리스천 기업인과 학생의 만남과 소통

한국기독교실업인회(한국CBMC·중앙회장 김영구, 오른쪽)와 송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16일 서울 동작구 송실대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

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소그룹 채플 운영을 위한 그룹 리더 모집 및 교육, 현장 중심 영성 기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로 했다. 또 CBMC 회원사와의 산학 협력을 통한 멘토단 운영, 인턴십, 업무 경험, 현장 실습 및 채용 기회 제공, 해외 CBMC와 연계해 공개개발원(ODA) 사업을 추진한다. 일터 사역을 위한 K 스타트업(K startup) 발굴, CBMC 회원사의 구인과 송실대 학생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산학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구 한국CBMC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크리스천 기업인과 학생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CBMC의 성경적 경영을 배우고 실천해 훌륭한 전문인력과 기업인으로 성장할길 기원한다"고 했다. 장범식 송실대 총장은 "산학협력 일자리 신고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평양의 장대현교회 부흥의 사례를 송실대가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서 풍성한 설 맞는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광주에 등지 든 안엘레나씨의 명절

안엘레나(43·여·사진)씨에게 지난해 초봄은 악몽 같았다. 우크라이나 서남부 미콜라이프 지역에 살던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난생처음 전쟁의 공포에 몸서리

쳐야 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폭격이 시작되면 땅과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하실에

숨어 살면서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집은 폭격으로 켜터미가 됐다. 집을 잃은 그가 택한 피란지는 한국. 고려인인 그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었다. '유럽의 다른 나라로 피란을 갈 수도 있지 않냐'고 묻자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했다. "고려인이 한국 아니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설을 나흘 앞둔 18일, 안씨를 만난 곳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고려인종합지원센터였다. (새고려인마을이 운영하는 이 센터의 관계자들은 오전부터 설 준비로 분주했다. 안씨를 비롯한 고려인 10여명이 준비한 식탁엔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으며 과일 갈비 전복 낙지처럼 값비싼 식재료로 만든 음식도 많았다. 만둣국처럼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요리, 마르코프차(채를 썬 당근을 새콤달콤하게 무친 김치)처럼 고려인의 향수를 달래주는 반찬도 눈에 띄었다. 안씨는 고려인마을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그의 가족은 광주의 한 월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을 구할

때 보증금 200만원을 고려인 마을에서 지원했다. 이들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떠나 한국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고려인은 약 700명이다. 고려인마을의 이런 활동을 이끄는 주역은 이천영(65) 고려인마을교회 목사와 이 단체 신조야(68·여) 대표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현지 고려인 전맹민의 한국 입국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모금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해 피란민에게 제공한 게 대표적이다. 이목사는 "피란민에게 생명을 돌보는 건진다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목사는 고려인 피란민이 한국에서 마주하는 고통에 대해 들려주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의료비 지원이다. 이들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니기에 병원에 입원하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목사는 "의료비 때문에 힘들 때가 많지만 고려인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덕분에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미소를 지었다.

달동네 주민에 연탄 나눔 '따뜻한 손길'

송파제일교회·강변교회 등 잇단 봉사활동

지역 교회들이 에너지 취약 계층인 연탄 사용 가구를 위해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밤상공동체·연탄은행(대표 허기복 목사)은 지난 1년간 54개 교회가 서울연탄은행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서울 송파제일교회와 강변교회(이수환 목사) 청년과 성도 44명은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봉사에 동참했다. 송파제일교회 청년회 신윤철 목사는 "청년들과 겨울에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보다가 3년 전부터 연탄봉사를 시작했다"면서 "섬김의 손길이 많이 늘어나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만나교회(공민상 목사)도 이달 초 30여명의 성도가 연탄을 나르며 온정을 나눴다. 천신우 전도사는 "울겨울 한파로

극심한 추위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이 너무 많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에 힘써야 할 때"라고 전했다. 허기복 밤상공동체·연탄은행 대표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은 추운 겨울을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많은 교회의 관심과 실천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연초에는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성도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연탄은행은 이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 있는 연탄교회(허기복 목사)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구정예배'를 드렸다. 교회 측은 성도 30여명에게 쌀과 떡, 겨울 내의, 온누리상품권 등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피종진 목사 1월 부흥성회

1(주)~3(화) 수원 예성교회 (성창경 목사) 010-2743-5302
 4(수) 오전 성민중앙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4(수) 저녁 서울 한영대학교 대학교회 (담임 한영준 목사) 010-2009-7272
 5(목) 저녁 세종평화회동산 (원장 피종진 목사) 신년축복대성회
 6(금) 오전 국부협신년하례예배 국민일보 12층 루나미텔레볼
 7(토) 오전 복인천중앙교회 (장사무열 목사) 010-7733-9106
 7(토) 오후 광명 동성서광교회 (송영수 목사) 010-3687-0115
 8(주) 저녁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 행정담당 김선형 목사 010-7758-7228
 9(월) 오전 서울강남반석교회 강사람 목사 010-8331-3431
 9(월) 오전 느헤미야 부흥사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신년하례장소 : 부천예림교회
 10(화) 저녁 서울 위대한약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11(수) 저녁 봉담중앙교회 (이 아사복사) 010-3133-4244
 기독교성신문 신년하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고문 박홍자 장로 회장 최금숙 교수
 발행인 김희숙 목사 010-5591-2325 장소 서울예수서원복음교회 (전혜성 목사) 010-5717-4984
 서울 여전도회관 주최 (사) 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010-9068-9197
 14(토) 오전 남서울중앙교회(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건국 목사) (02) 3411-9191 제직신앙탄환기도회
 15(주) 저녁 인천 소망교회 (황귀래 목사) 010-4423-2838
 16(월)~17(화) 성명 주영교회 (전원목 목사) 주회 지구촌기독교운동본부 (대표총재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대구 주암산기도원 (원장 오영숙 목사) 010-8681-3223 이청재장로 010-3836-8501
 20(금) 오전 서울 강서구 강일교회 (고수경 목사) 010-2276-038820
 (금) 저녁 시흥 새하늘교회 (박승식 목사) 010-5384-0691
 22(주)~24(화) 새창원 은혜교회 (담임 피은혜 목사) 010-4586-8642
 25(수) 저녁 서울강남반석교회 기도원 (강사람 목사) 010-7793-9106
 26(목)~27(금)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28(토) 오전 서울 초월교회 (신정희 목사) 010-3721-5554
 28(토) 오후 마라나타 복음방송 MGB TV (김도라 목사) 010-8954-8956
 29(주) 저녁 대한예수교 경교회 (합동) 동서울노회 (노희정 신영호 목사) 살롬부흥운동 연합성회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 6181-9282
 30(월) 저녁 주회 느헤미야 부흥사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mission 선교의 창 (209)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복음이 필요한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여! 안녕(安寧)한가? 그렇지 못하다. 아름다운 광활한 대륙에 무슨 일이 있어 왔는가? 그곳은 유럽 국가들의 지배와 착취, 흑인 노예들의 비극, 혼혈로 인한 종족 형성 및 노동착취 등으로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현재도 식민 역사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 냉전이후 반미성향의 정치적 혼돈, 빈부격차의 심화, 미약한 경제구조, 높은 실업률과 이자율 등으로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마약과 여러 갱단들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철새처럼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고 있다. 여기에 가톨릭의 생명력 없는 종교 행위와 해방신학은 사람들의 가슴에 진정한 평강을 주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라틴권을 향한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역할이 요구된다.

리브 및 남미지역을 포함하며 위도상으로는 북위 32도와 남위 54도 사이에 위치한다 (wikipedia). 대륙의 총면적은 약 2,055만km²로서 전 세계 면적의 15%를 차지한다. 이곳에는 33개 독립국과 몇몇 속령 및 식민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1/23, Worldometer. Info 통계에 의하면 총인구수는 668,864,774명으로서 세계의 8.42%를 차지한다. 주된 언어는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등 5개가 있다. 그 중 18개 나라가 스페인어

아프리카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인디오 문화가 우세한 지역을 인도-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아스테크 문명과 잉카문명을 낳은 멕시코 고원과 안데스 산지가 그에 해당된다. 이베리아 문화가 지배적인 지역을 유로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도 다수의 유럽이민을 받아들여서 발전해 온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지를 말한다. 그곳에서는 인디오 문화와의 접촉이 적었기 때문에 현재도 남(南)유럽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아프리카 문화

로 아메리카, 특히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인디언문화도 아니고, 유럽문화도 아니고, 아프리카문화도 아니고, 북미문화도 아닌 “혼합문화 (Hybrid culture)”라 할 수 있다.

3. 선교적 동향

Operation World 자료에 따르면 1900년대에는 Spanish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톨릭으로 간주되었다. 그 이후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개신교 선교활동에 강하게 반발하던 편협한 전통주의는 기울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로써 금성철벽(金城鐵壁) 같았던 천교의 아성이 무너지면서 개신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개신교가 지난 수십 년간 급성장했음을 심심치 않게 보도해 왔다. 카리브 해협을 포함 라틴 아메리카에만 개신교 인구가 5천 5백만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2000년도의 Johnstone의 자료를 참고하면, 세계 복음주의 인구 중 35%가 중남미의 복음주의 교인들이라고 한다. 특히 오순절 운동과 가톨릭권에서의 신은사주의 운동

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4. 라틴권의 선교 방향

가톨릭 (Catholic) 배경과 스페니쉬(Spanish)가 주류를 이루는 동일 문화권에 요구되는 선교전략은 무엇일까? 첫째, 라틴권 한인 선교사들이 사역적 성격에 따라 담대한 연합이 일어나야 한다. 교단과 파송단체와 국가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킹덤 차원에서 선교 파트너십을 구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역적 정보교환, 좋은 매뉴얼 (Manual) 공유, 훈련 교재 등 매뉴얼 공유, 인적 교류 등이다. 둘째, 현지 한인교회가 선교적 (Missional Church)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각 나라와 종족 가운데 심겨진 한인교회가 게토 (ghetto)를 형성해서는 아니 된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엄청난 선교적 사명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풍성한 선교자원들이 있다. 특히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2세대들과 사업에 성공한 재력가와 전문성을 지닌 성도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선교적으로 동원시키지 않는 한 큰 역사를 이룰 수는 없다. 셋째, 현지인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히 사역을 이

을 것이다. 그 한 방법은 북미주 한인교회가 단기 선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맺음 말

라틴 아메리카여! 평안할지어다. 라틴 아메리카의 매력은 너무나 다양한 인종, 문화, 스타일, 가치관들이 한 개의 언어, 스페인어(브라질은 포르투갈어권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대륙에서도 볼 수 없는 좋은 사역적 환경이다. 문제는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갈 것인가? 자명한 사실 하나는 대표선수 격인 파송 선교사 몇 명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가능한 모든 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간 한국교회의 선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심이었다. 중남미는 대한민국에서 볼 때 거리감이 있었다. 그러한 연고로 현재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역중인 한인 선교사는 1,072명(Krim Report: 2020 년 말 기준)이다. 이 수치는 다른 대륙에 비해 그 비율이 턱없이 낮다. 따라서 앞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한국의 교회가 주로 감당하되 중남미권은 북미주 한인교

**중남미에는 약 6억6천8백만 명의 영혼들이 있다.
역사적 아픔과 사회적 불안이 공존하는 저 땅에 복음만이 산 소망이다.
북미주 한인교회는 역할 분담 차원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품어야 한다.**

1. 일반적 상황

라틴 아메리카 (Latin America)는 중남미라고도 부른다. 흔히 사람들이 남아메리카와 헷갈려 하는데 남미는 지리적 구분이고 라틴은 문화적 구분이다. 이 지역은 북미의 “앵글로색슨(Anglo-Saxons) 아메리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문화적, 역사적 공통의 배경에서 동질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왔다. 라틴권은 중미, 카

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이는 라틴 전체 면적의 56% 해당되며 인구의 63%를 차지한다. 히스패닉(Hispanic)이란 이들 중 북미주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중남미 대부분 나라들은 유럽 식민지(植民地)에서 해방되어 독립국이 되었다.

2. 혼합문화의 땅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는 토착민의 인디오 문화와 식민지의 이베리아 문화 및 수입 노예의

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을 아프리카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인디오 문화가 우세한 지역을 인도-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아스테크 문명과 잉카문명을 낳은 멕시코 고원과 안데스 산지가 그에 해당된다. 이베리아 문화가 지배적인 지역을 유로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도 다수의 유럽이민을 받아들여서 발전해 온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지를 말한다. 그곳에서는 인디오 문화와의 접촉이 적었기 때문에 현재도 남(南)유럽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아프리카 문화

이 대단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다. 사회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인 코스타리카 출신의 호르헤 고메스(Jorge Gomez)는 1994년 완성한 논문에서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 중에 50%는 교회를 떠난다. 과거에, 혹은 현재 개신교인이라고 지칭하는 20% 중 단 10%만이 개신교인으로 남아 있다.”라고 주장했다. 탈퇴 현상은 확고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과 목회적 돌봄이 없는 교회들에서 가장 두드러지

양해야 한다. 그 방안은 고(故) 랄프 윈터(Ralph D. Winter)박사가 주창한 개척(Pioneer), 양육(Parent), 협력(Partnership), 참가(Participant)라는 4P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지인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사는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라틴권 한인교사와 단체들은 북미주의 4,700개 한인교회와 네트워크를 엮을 필요가 있다. 이는 적지에서 함포 사격이나 폭격기의 지원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

회가 중심이 되도록 가름 마를 타야 한다. 그러면 사역적 선택과 집중 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아무튼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리 잡고있는 한인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고 현지 선교회가 북미주 한인 교회들과 선교 네트워크(Network)를 촘촘히 구축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북미주 한인교회에도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jrsong007@hanmail.net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⑥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 비로소 십자가와 고난을 설명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질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한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바다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서남쪽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구약 시대에는 바알갓(수 11:17; 12:7; 13:5)으로 불려 졌습니다. 사실 바알갓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으로서 행운의 신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단 두 번 나타나는데(마 16:13; 막 8:27), 두 곳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한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주전 20년경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대왕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주전 19년에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신전을 이곳에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합쳐 가이사라 빌립보(Caesarea Philippi)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분할받은

당시 대표적인 세속 도시였습니다. 먼저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 세운 도시입니다.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받은 땅에 그의 아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 세운 도시였습니다. 이름도 로마 황제를 위해 가이사라라고 지었고, 빌립은 자기의 영광도 포기할 수 없어서 빌립보를 넣었습니다. 로마 황제

있습니다. 그중에 고대 헬라의 판(Pan)신(神)도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고대 헬라 판신의 중요한 숭배지입니다. 판신은 자연, 산과 수풀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판(Pan)숭배는 로마 황제숭배와 결합해서 2세기 중엽 이후에는 가이사라 파니아스 혹은 가이사라 베네스 파니온(Caesarea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방 신의 흔적이 많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고려할 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설명하는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등장하는 “음부의 권세 (the gates of Hade)”라는 표현을 위상들의 권세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서지리학자 데이빗 패드필드목사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고대 이방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도시라고 주장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아그리파가 로마의 네로(Nero) 황제를 기리며 네로네아스(Neroneas)라고 불렀고,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아그리파 2세(행 25장, 26장)시대에 단순한 로마 행정도시가 아닌 그리

인하게 노예로 팔았고 그 유대인 노예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참혹하게 죽은 역사가 있습니다.

티토 장군에 점령당했던 가이사라 빌립보는 4~5세기경까지 기독교 공동체가 존속되었습니다. 하지만 5세기경에 큰 지진으로 도시는 다시 크게 파괴가 되었고, 7세기에 아랍 군대의 침공으로 기독교인들이 거의 몰살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967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판신(Pan) 신전과 헤롯왕의 궁궐이 발굴되어 성경에 있는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신상과 판신을 포함한 고대 이방

“제자들의 믿음 고백 근거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질 것을 예언한 장소”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Philip)이 바니아스에 그리스-로마형 도시를 건축하고 자신이 통치하던 빌립보 지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빌립 헤롯이 도시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한 이유는 로마가 유대 통치를 위해 세웠던 행정도시 가이사라(행10장)와 구별하기 위하여 빌립보라는 말을 첨가했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

신전을 지어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둘째로 가이사라 빌립보를 세속 도시라고 부르는 것은 각종 위상의 신전이 우글거리는 도시였습니다. 고대 시리아 바알(Syrian Baal) 신을 섬겼던 신전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4개의 바알 신전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집니다. 그 외에 많은 이방신 숭배의 흔적이 많이 남아

Beneath Panion)으로 불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한 동굴을 판(Pan)신(神) 출생지로 알려줍니다.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건축되었고 그곳에 중요한 건물들 벽에 판신 숭배의 흔적이 남은 문헌자료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판(Pan)신을 숭배한 흔적이 있습니다.

판(Pan)신(神)을 포함한 이

스 로마의 문화를 뽐낼 담은 전형적인 로마 도시로 발전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전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토 장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유대 땅을 침공한 티토 장군은 얼마 동안 이 도시에 머물면서 축제를 벌이며 아그리파 2세를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성안에 남아 있던 9만 7천 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잔

신의 신상이 우글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나 고대 신들보다 뛰어난 참신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위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에서 신앙고백을 근거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은혜의 유통자 (삼하 9:1~8) 찬455장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삼상 20장).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낼 때 요나단의 집에는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언약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게 되었고, 다윗은 두 다리를 다 저는 므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서 늘 먹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은혜를 베풀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므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여 자신의 왕자들과 같은 대접을 합니다. 은혜의 유통자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의 증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증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화 은혜로 주어지는 Second Chance, 회개 (삼하 12:7~15) 찬265장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시기에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기 부하인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하였고, 밋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의 죄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암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한 것'과 같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13절). 우리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짓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수 무서운 죄의 결과 (삼하 13:20~39) 찬348장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이름의 누이가 있습니다. '암논(다윗의 딸)'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후 암논은 다말을 쫓아냅니다. 압살롬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암논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이 년 후에 압살롬은 양털 깎는 잔치(마치 추수하는 날과 같은)에 암논을 초청합니다. 술에 취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술왕 달매(압살롬의 외할아버지)에

게 도망가서 삼 년을 거기서 삽니다. 죄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위력으로 밋세바를 범하고,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암논은 그의 위력으로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힘으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목 연결자가 됩시다 (삼하 14:1~24) 찬308장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요압은 드고아 출신의 한 여인을 시켜서 다윗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 여인에게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요압이 지어

낸 이야기였고,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요청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게 합니다. 요압은 끊어진 다윗과 압살롬을 연결하는 연결자였습니다. 연결자의 표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연결자로 살아야 합니다.

금 악한 자의 악한 말에 상처받지 마시다 (삼하 16:5~14) 찬425장

다윗이 베히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족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은 오히려 아비새를 말리며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게 내 버려둡니다.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므이는 재빨리 다윗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삼하 19:6-23).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솔로몬에게도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삼하 20:2)

왕상 2:8). 다윗은 악한 사람이 내뱉는 악한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늘 악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말과 행동의 결과는 결국 그 악한 자에게 돌아옵니다. 도망간 두 종을 찾기 위해 은혜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내뱉는 악한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삼하 18:1~18) 찬200장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오기 전에 다윗은 병력을 정비합니다.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잇대에게 병력 삼분의 일씩을 맡깁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큰 슬픔에 잠깁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

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렸습니다. 요압은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찢어 죽입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나를 죽임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읍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a)"

기독교 교육 (20)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밸런타인데이와 사랑의 종류

2월 14일은 밸런타인데이(Valentine's Day)입니다. 매년 이날을 맞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선생님 과 친구들을 위해 카드와 초콜릿을 준비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인들이 서로 마주 보며 서로에 대한 관심에 몰두하는 것이라면, 필리아는 서로 나란히 서서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밸런타인데이는 3세기 로마의 박해 하에서 활동하다가 269년 2월 14일에 순교한 밸런타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에 관한 전설 가운데, 결혼이 금지된 기독교인 병사들을 위해 주례를 섰다는 이야기, 감옥에 있을 때 간수의 눈먼 딸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이야기, 처형당하기 직전에 간수의 딸에게 작별 편지를 쓰고 "Your Valentine(당신의 밸런타인)"이라고 서명했다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넷째, 스토르게(Storge)는 감성적이며 동시에 이성적인 사랑으로서 동기간의 우애를 말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스토르게 사랑은 시간이나 공간, 상황이나 조건을 초월하여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밸런타인데이를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라고 하고, 3월 14일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밸런타인데이에 부부, 부모자녀, 연인, 친구, 동료 사이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카드, 초콜릿, 또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섯째, 아가페(Agape)는 의지적인 사랑으로서 돌봄의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는 사랑입니다. 결혼식에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은 마음이 저절로 끌리는 것이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입니다. 필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은 함께 활동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깊어집니다. 또한 스토르게는 혈연관계에 따른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끊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가페만큼은 의지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페라고도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의 자녀들은 영어의 특성상 사랑(Love)이라는 말을 너무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엄마아빠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운동도 사랑하고, 아이스크림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헬라어(그리스어)는 사랑의 대상이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단어가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다섯 개만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가페는 의지적이기 때문에 명령이 가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에피투미아와 에로스라는 명령에 따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은 마음이 저절로 끌리는 것이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입니다. 필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은 함께 활동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깊어집니다. 또한 스토르게는 혈연관계에 따른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끊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가페만큼은 의지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페라고도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에피투미아(Epithumia)는 육체적인 사랑으로서 정욕 또는 탐욕적인 애착을 말합니다. 이것은 동물적인 사랑으로서 짐승 같은 행위를 낳습니다.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에피투미아는 모두가 최대한 멀리해야 할 사랑입니다.

둘째, 에로스(Eros)는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감성적인 사랑입니다. 저절로 끌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길만 마주쳐 불꽃이 일면 케미가 터지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반대할수록 더 강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로스에 빠진 청년 남녀를 강제로 떼어놓으려 할 때,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셋째, 필리아(Philia)는 이성적인 사랑으로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좋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뜻합니다.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에로스가 연

부부의 백년해로는 에로스와 필리아와 아가페를 필요로 합니다. 결혼생활의 시작을 위해서는 우선 에로스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매력에 끌려 데이트를 하게 되고, 데이트는 결국 두 연인으로 하여금 결혼에 이르게 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이기적이어서 주는 것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독점적이어서 제삼자와 나눌 수 없습니다. 또한 충동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해악을 낳지 않기 위해 적당한 한계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로스 사랑은 전성기에는 뜨겁다가 권태기를 만나면 식어집니다. 유행가에 나오는 사랑은 대부분 에로스입니다.

결혼생활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에로스는 사라집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거나 손끝만 스쳐도 전기가 흐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자녀양육, 저축, 주택 마련, 노후대책 등의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필리아가 돈독해지고 서로 닮아갑니다.

넷째, 에로스 사랑은 이기적이어서 주는 것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독점적이어서 제삼자와 나눌 수 없습니다. 또한 충동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해악을 낳지 않기 위해 적당한 한계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로스 사랑은 전성기에는 뜨겁다가 권태기를 만나면 식어집니다. 유행가에 나오는 사랑은 대부분 에로스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평생토록 유지시키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결혼생활이 지루하고 짜증 나고 실망스러울 때라도 부부를 묶어 두는 것이 곧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아가페(Agape)는 의지적인 사랑으로서 돌봄의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는 사랑입니다. 결혼식에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은 마음이 저절로 끌리는 것이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입니다. 필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은 함께 활동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깊어집니다. 또한 스토르게는 혈연관계에 따른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끊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가페만큼은 의지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페라고도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밸런타인데이는 사랑의 날입니다.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기에 좋은 날입니다. 이민자들 모두가 에로스와 필리아와 아가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매일매일을 밸런타인데이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김종환 저, 날 때부터 맡긴 바 되었고, 63쪽
jonk@dbu.edu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펠리

아르헨티나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먼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새해 2022년이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벌써 연말을 한 주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 6개월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사역의 즐거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아르헨티나 선교 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1. 아르헨티나 퍼스펙티브스 온라인 세미나가 지난 5월부터 등록을 시작하여 7월 초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120여명의 아르헨티나 학생들과 30여명의 파라과이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10월 마지막 주간에 모든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던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는 각오와 다짐을 갖고 세미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퍼스펙티브스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에 10가정이 올해 한 해 동안 선교사로 파송 받아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스페인, 태국, 터키, 폴란드, 카우카소, 모잠비크 등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 디나목회신학원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2년 이상 대면 모임을 갖지 못하고 현지 목회자들과 개인 멘토링과 목회 컨설팅을 진행해 오다가 8월에 1박 2일 모임을 갖고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지 교회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여 목회를 해 왔는지"에 대하여 간증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살타 지역에서 사역하는 10가정의 목회자 부부들이 부에노스로 와서 "성경적 교회 성장 전략"에 대하여 공부하며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10가정의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져서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강한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3. 박성흠 선교사가 "목회자분과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아르헨티나 선교협력기구(RMM, COMIBAM)에서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4-6일에 선교대회를 갖습니다. 현장에서 약 600여명이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1000명 이상이 연결되어, 마지막 축축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교회와 전략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기여하자는 도전과 비전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선교계 리더들 중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에 이제는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 아르헨티나 선교계를 이끌어 나가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단순한 선교지가 아니라, 그동안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열매를 맺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 봅니다. 저는 외국인 선교사이지만, 현지인 리더들과 함께 이러한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동력을 하려고 합니다.

4. 매년 11월이 되면 성탄절 선물박스를 준비하여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 주일 학교, 농촌학교, 무료급식소, 고아원, 인디언 마을 학교 등지에 보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의 협력과 헌신 그리고 헌금으로 약 500개 정도의 선물 박스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역은 100km, 먼 지역은 2200km 떨어진 지역으로 발송하였고, 성탄절과 학교 수업 마지막 날에 함께 선물을 나누며, "성탄절에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직 예수만이 이 땅의 희망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



한 선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1. 매년 1월과 2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살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 가정과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디나목회신학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구신학 공부를 하지 못하고 목회하는 현지인 목회자 15 부부를 살타지역(약 1600km)에서 모 집하여 4년 계획으로 목회자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석하게 될 목회자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이 세미나가 잘 이루어지도록 경제적인 예산이 충당되며, 꼭 필요한 현지인 교수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아르헨티나 퍼스펙티브스에서는 2023년 2월 23-26

일에 스텝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섬기게 될 모든 스텝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며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섬길 각오와 다짐을 하는 중요한 수련회입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응원은 늘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록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새해 2023년도 더욱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 열방을 품으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헌신하여 마지막 날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함께 기쁨으로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박성흠-정명희 (신애, 지애, 원진) 선교사 드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남아시아 B국

▲ 종족명 하종 종족

▲ 인구 약 10,000명

▲ 종교 대부분 힌두교

▲ 기타

2015년 글자를 제정했으나, 아직 대부분 구어에 의존

▲ 프로젝트 소개

남아시아 B국 북쪽 국경 지역에 위치한 하종 종족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번역된 모어 성경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이야기와 영상 매체를 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2017년 시작되었고, 지역 NGO와 협력하여 마을 여러 지역을 탐방하며 알파벳과 문해 교육 책자를 알리고 있다. 현재 이야기 성경을 제작 중이다.

▲ 기도제목

- 1. 복음을 들은 적이 없고, 자신들의 종교를 붙잡고 살고 있는 하종 종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2. 하종 지역에 섞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로 종족 교회와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하종 종족 복음화에 함께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New York, New Jersey, and Hawaii churches.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제 8회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

최우수상 이윤진(ANC 온누리교회)

“당신과 함께하는 꽤 괜찮은 비기닝”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에서 주관한 제 8회 독후감 공모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윤진((ANC 온누리교회) 성도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지션, 문학동네)”을 읽고 독후감을 적었다. 심사위원장 백승철 목사(에피포도예술과문학 대표)는 “전통적인 독후감 형식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했고, 자신의 감정으로 객관화하여 친구 효정에게 흐르는 책의 정서를 녹이고 있다. 문학적 역량도 눈에 띄게 돋보일 뿐 아니라 글의 구성과 구조가 탄실하기 때문에 독후감을 읽는 독자 역시 또 다른 작품을 읽는 듯 착각에 빠질 정도로 신선한 구성이다. 계속해서 글을 써보라고 당부하며 기쁘게 최우수상으로 선정한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본지에서는 금번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들을 차례로 게재할 계획이다. 다음은 최우수상 독후감 전문이다.

효정. 치열했던 2022년 우리의 여름은 가고 이제 가을바람이 제법 선선한 것을 보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올해도 금방 가버리겠구나 생각이 든다. 우리 아팠던 그 순간도 그러했고 우리가 만났던 행복한 그 순간도 그렇듯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기 마련, 2022년은 나에게 또한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마무리 될까.

효정. 올해뿐만 아니라 당신은 매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다른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달려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나는 잘 알고 있어. 사실 그 삶을 내던져 버리고 싶을 만큼의 큰 고통이 당신을 덮었을 때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가 많았잖아. 수년 전 불현듯 다가온 사고로 인해 신체 오른쪽이 모두 마비되고 오른쪽 눈은 실명. 재활로 90% 회복되기까지 당신은 처절한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럼에도 살아야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

신의 딸 때문도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가 희망차고 넉넉하리라는 확실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 50여 년을 힘들게 살았는데 그냥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내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 제목만으로 끌렸던 이유는, 현재의 삶이 부디 새드 엔딩(Sad Ending)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고 해피엔딩의 노하우를 이 책을 통해 얻은 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 진심으로.

효정. 화상이라는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저자 이지션 자매는 미국에서 석사/박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교수를 역임하면서 장애 단체의 친선대사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초경정으로 당당함으로 살기에 독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더라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화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이지션이라는 사람이 수년 후 책을 출간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대학 강단에 서는 저자이자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해피엔딩이 아닐까, 이것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엔딩(끝)이 아님을 알았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해피엔딩에 대한 답을 몇 번의 정독을 통해 얻었다고 말하고 싶어. 한편으로, 아무리 긍정적이고 감사 충만하게 살더라도 저자는 2003년의 교통사고 후 이미 바뀌어 버린 신체로 인해 독자들은 감히 짐작도 못하는 또 다른 고통이 저자에게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자면, 여덟개 받아왔던 수술의 횟수보다 더 자주 복원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이에 따른 또는 노화에 따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한 남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여인으로 사는 삶은 포기했어야 하는 게 이 책에서는 코믹하게 다뤄졌지만, 그 속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있었지. 힘겹지만 나를 행복한 삶을 살다가 작가는 결국 인생의 엔딩을 맞이 할 텐데 그것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독자들에게 얘기 하려는 걸

까? 나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았어.

효정. 인간은 누구나 한번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성공적이거나 행복하더라도.. 한편으로 고생스럽거나 열심이었을 80세 혹은 90세에 죽음으로 모든 게 완전히 끝이 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해피엔딩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더라도 그 인생은 반드시 끝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 이지션 작가 포함 - 해피 비기닝(Happy Beginning)이 하늘나라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시간이 고통스러워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당장의 고난이 이해가 안 돼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비록 몸이 성하지 못해도 생명이 있는 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만약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수고가 보상도 없이 죽음 이후 그냥 그렇게 사라진다면? 정말이지 이 보다 더한 새드 엔딩은 없을 것 같아. 죽음 이후, 마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듯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엔 영생이 있다(요한복음 5:24)고 증거하고 있어. 이 나라에서 “그 분의 나라”로 갈 때,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생은 마라톤 같다고(178p) 이 책에서 저자가 말했다고 본다.

42.195km의 마라톤 동안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시간 속에서 극도의 목마름과 최고의 체력을 소비함에도 그 경주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건 결승점에 들어가는 순간 운명으로 만끽할 수 있는 환희가 있고, 경주자를 맞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 일 테지. 슬픔이 아니라 행복이 시작되는, 잘나는 끝이 나고 영원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진정한 행복을 이 땅이 아닌 “그 나라”에서 맞이할 것이라고 크리스천인 이지션 작가는 확신하고 있었어. 내가 믿기엔 말아야.

효정.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디모데후서 4:7-8)” 바울이라는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다. 험난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지션 작가는 그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의 환영과 함께 상급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결코 녹록지 않은 이 땅의 삶에서 치열한 싸움을 마친 후 그 나라에 가려고 할 때, 당신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사랑하는 친구, 효정.



이 땅에서 사는 내내 몸이 많이 아파야 했던 당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과 사건으로 인해 불안에 떨면서 남몰래 울어야 했던 당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 한 날 한 순간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가가 여린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막아내며 홀로 딸을 키워야 했던 당신. 비록 지금은 감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 행복이 이 땅에서 보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 우리 같이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을까 하고. 우리 같이 [꽤 괜찮은 해피 비기닝]을 그 곳에서 맞이하고. 이 마음이 부디 나와 같기를 바라면서...

2022년 10월 29일, 윤진

ps 그 나라엔 사실 엔딩 없어서 질편하게 행복할 거다! joyceyoonjin@gmail.com

새책소개



여운세 지음

“간추린 조직신학”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내용만을 간추린 여운세 목사의 저서 “간추린 조직신학”(출판사 이름)이 출간됐다. 본서는 저자 여운세 목사가 일평생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며 수정하고 보충해서 얻은 신학 자료들을 중심으로 집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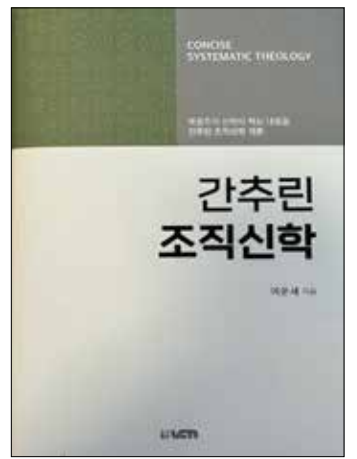
기존의 조직신학 서적들은 대부분 짧으면 상하권, 아니면 4권 정도의 큰 분량인 것도 있는데 반해, 본서는 신학 서론으로부터 종말론에 걸친 방대한 범위의 조직신학의 내용을 포인트 별로 핵심내용만 간추려 한 권에 담았다. 또한 현

대신학의 비성경적 이단적 신학들에 대한 비평을 통해 정통적 역사적 보편교회의 성경적 신학을 재정립했다고 볼 수 있으며 자유주의 신학과 상반되는 복음주의 신학의 정당성을 증거 하기 위하여 힘쓴 흔적이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신학이론만을 제시하거나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의 실명과 함께 정당성을 증거 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성경구절을 펼쳐 보임으로써 독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했다. 책의 구성은 1부 ‘조직신학의 서론적 개관’, 2부 ‘성경론’, 3부 ‘신론’, 4부 ‘인간론’, 5부 ‘성령론’, 6부 ‘기독교론’, 7부 ‘종말론’으로 나눠 총 80여 편의 글이 수록됐다. 특히, 기독교의 성경적 진리

를 짧은 시간에 터득하고 리뷰할 수 있도록 집필되어 목회사역자, 신학생과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조직신학의 내용을 쉽게 익히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록으로 ‘성지순례에서 재확인한 유대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평’, ‘단기 제지훈련교안’이 담겨있다. 책 구입에 관한 문의는 yeowonse@gmail.com로 하면 된다.

(김재상 기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o@chpress.net / 718-886-4400



(일반용)



네모 칸마다 소린 글씨위에 똑똑똑 딱 바르고 예쁘게 써주세요.



(청소년용)



영어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네모 칸마다 소린 글씨위에 똑똑똑 딱 한글로 예쁘게 써주세요.